朝鮮日報
夕刊
二十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議會解散은決定的!

政友、滿場一致로 不信任案提出決定

廿日새벽院內外總務會에서

理由書、安藤氏作成

【電通東京電話】不信任案의 內容과 二十日의 黨大會에서할 鈴木總裁演說內容宣言文을 決定할 政友會院內外總務會는 十八日에 繼續하야 十九日午後五時부터 芝三緣亭에서 開催하고 久原總務以下 各院內外總務、松野幹事長等이 出席하야 久原氏를 座長에 推戴한다음審議에 들어가기前에 即時 休憩하고 砂田、島田兩總務、松野幹事長等 三氏는 別室에서 忌憚업는 意見交換을 行하야 議事의 圓滿進行을 圖하려고 斡旋한結果 午後八時半에 至하야 겨우 再開하엿는데 劈頭에 島田總務로부터 十八日審議未了가된 黨大會의 宣言과 鈴木總裁의 演說內容을 說明하고 速히 決定하고저한다고 諮問하매 安藤總務가 腹案을 朗讀하야 二、三字句를 修正하고 正式原案을 承認한다음 二次休憩하엿다 그동안問題의 不信任案의形式內容에關하야 個別的으로 協議하야 同十時三次 開會하엿든데 먼저 猪野毛利榮氏로부터 總括的 不信任案과 國體明徵不信任案의 兩建案을 提出하고 어 可否를 決定해 주기바란다라고要求하엿는데 森田政義 安藤正純、滿洲一郞 田渉七六等 諸氏로부터 벌서 黨大勢는 決定되어잇스므로이案 氣로判斷해주기바란다 라고答하며 猪野毛氏는 거듭單히大勢만으로써 決定하는것은不可하다고 反對하고金光庸夫氏는 猪野毛氏의 意見은極히 意味가잇다고생각하므로 이案을充分히 討議하는것이 如何하냐고 猪野毛氏의 助言을 하매前田米藏、島田俊雄、牧野良三、堀切善兵衛等 諸氏로부터 兩建案을 내는것은 法制上으로도 困難하다는 意見을 開陳하고 武田德三郞氏는 二十日까지 決定을 留保하고 다시 愼重審議한다음 決定하는것이 如何하냐고 留保說을 提出하자 松野幹事長은 이問題는 可及的 速히 全會一致로써 決定할 必要가잇다는 旨를 力說하고 最後로 久原房之助氏로부터 全會一致로서 決定함에는 二十日午前十時頃까지 決定을留保하고 잘 懇談할 必要가잇다 라고 留保說에 贊成意見을 述하엿스나 參列한 大多數는 總括的不信任案提出을 主張하야 마지안흐므로 同十一時 五十分 又復 休憩하고 別室에서 久原氏는 山本條太郞氏以下 國體明徵實行委員과 懇談을 交하야 여러가지로 懇談한結果 겨우 總括的 不信任案提出에 同意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어 二十日午前零時 四次 開會하고 議事를 續行하야 猪野毛氏로부터 總括的不信任案提出을 滿場一致로써 決定해주기바란다 라고 提議하야 이것을 可決하고 不信任案과 提案理由의 起草를 安藤氏에게 一任한다음 二十日午後七時 芝三緣亭에서 다시한번 院內外總務會를 開하고 案文을 附議決定하기로하고 二十日午前零時二十分 겨우 前後七時間에 亘한 審議를 마치고 散會하엿다 (寫眞은 鈴木總裁)

駐日新任大使 王氏?許氏?

【南京十九日發同盟】常設中央裁判所判事王寵惠氏는 今回 辭表를 提出하엿는데 南京에 歸還한後 蔣介石氏의 要請에 基하야 東京駐剳大使로 赴任할것으로보인다

【上海十九日發電通】駐日大使의 有力한 候補者라고 傳하는 賑務委員會委員長 許世英氏는 蔣介石氏의 招聘으로 最近 南京에 來하야 蔣介石氏로부터 駐日大使就任을 要請바든 模樣인데同氏는 午後十一時半 來滬하엿다 許氏는 極力 大使就任을 否認하고잇스나 中國側에서도 그實現을 期待하고잇다

發言機會不與코 政府率先解散命令

【東京電話同盟】第六十八議會는 勝頭解散의 風雲을 孕胎하고 드디어 二十一日 開催되엇는데 政友會內部情報는 十九日의 院內外總務會의 結果 드디어 總括的 不信任案을 提出키로 態度가 一決되엇스므로 政府는 곳까지 受動的 立場에서 應戰한다는 旣定方針에 따라 議會對策에 何等 變更을 加할 必要가 업서젓스므로 二十一日 特別한 事情이 發生치안는限 豫定된 同日의 臨時閣議는 이것을 中止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右에 適應할 機宜의 處置는 이를 모다 岡田首相에게 一任하기로 되어잇서서 政府의 方針으로서는 可及的 各方面을 刺戟할것업시 깨끗이 解散을 行하려고하고잇스므로 二十一日定刻午後一時 衆議院의 本會議가 開會되어 軍縮代表에 對한 感謝決議案을 議長이 上程한後 岡田首相、廣田外相、高橋藏相의 施政方針演說이 終了됨을 기다려 政友會에 發言할 機會를 與하지안코 即時 解散을斷行하고同時에解散理由를聲明公表할터이다

日滿中三國間 提携實現에邁進

對日政策은四億大衆을對象으로

外相의新外交政策

【東京電話通】廣田外相은 對蘇政策에 이어서 軍縮對策에 專念中이던바 軍縮會議도 마츰내 決裂되엇스므로 今後는 外交의 重點을 轉하야 對滿中政策에 두고 日滿中三國의 提携實現에 邁進하기로 決定하엿다 軍縮會議決裂後의 國際關係는 表面 冷靜을 假裝하고잇스나 通商關係에 相當한 惡化를 不免하고 日本人發展의 餘地는 漸次로 狹少하게될 傾向이 잇는데 鑑하야 此際에 日滿中三國의 搖動업는 基礎를 굿게하야 滿洲事變以來의 東亞政策의 實現에 專念하기로된것이다 그런데 有吉駐中大使는 須磨南京總領事의 歸任을 기다려 二月上旬 歸朝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廣田外相은 二月中에 新駐中大使有田八郞氏를 赴任케하야 이것을 契機로 駐中外交機關의 陣容을 一新하야 從來의 懸案에 拘泥하지안코 新方針으로써 對中政策遂行에 邁進하기로되엿다 그런데 日中關係도 北中自治政權實現으로써 드디어 轉機期에 들어갓스므로 三月中에 日中南京會議를 開催하야 爲先 日本三原則에 基한 中國側의 具體案提議를 求할 豫定인데 日本對中政策도 從來와가티 要人을 對象으로한 政策을 一變하고 新政策의 基礎를 四億大衆우에 置하고 日中國民福利를 相互增進케할 百年大計에 邁進할 方針인바 外務當局에서 立案中인 新政策의 骨子는 如左하다

一、從來와가티 一局部的軍閥政治家를 基礎로한 對中政策을 淸算하고 國民을 直接對象으로 하야 相互의 國民的利益을 增進함으로써 根本政策으로할것

一、日中의 참된 提携를 圖하기爲하야서는 中國의 獨立繁榮이 必要하고 그것을爲해서는 모든 援助를 與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을爲해서는 中國自身이 反省하야 日中關係를 日滿兩國關係와 如한 提携可能狀態로 改善하는것이 先決條件으로할것

一、北中自治運動은 中國革命運動의 前提라고도 看做할것으로 日滿中三國의 提携를爲해서는 如斯한 政權의 出現이 [illegible] 따라서 中國側이 率先하야 國民政府를 改組하야 北中組織에 [illegible]할것

一、中國國民의 自力更生은 經濟的要素를 救濟하고 民力涵養을 保育함이 根本要因이다 그러므로 災害豫防을 二大眼目으로할것

一、政治的安定을 圖하기爲해서는 國民政府의 改組와함께 國家財政과 中央銀行의 財政을 判然히 分離하는것이 必要하다 그리고 中央銀行은 治外法權의 撤廢로 全中金融의 統制를 强化하야 經濟的基礎를 鞏固히할것

一、災害防止를 爲해서는 水利事業을 極力勸獎하야써 年年十數億元에 達하는 旱害災害를 防止하야 人口의 八割을占한農民의 窮乏을 救하고 國際貿易及 國家財政의 好轉을 圖할것 이水利事業은 滿鐵과 提携할것

一、外國의 投資本을 吸收할것

一、外國의 抵制排日은 極力排除할것 (寫眞은 廣田外相)

如한 大會社를 日中合辦으로 組織하고 이資本에는 低利外國資本을 吸收할것

國民同盟決議

【東京電話同盟】二十日國民同盟黨大會의 決議는 如左하다

我國民同盟의 議會對策은 이미 今議會에 提出한 議會解散奏請決議案에 依하야 盡하엿다 總選擧에 際하야 다시 左의五項目을 擧하고 全國民의 批判을 求하려한다

一、國防과外交와의國論一元化

二、激增하는人口에對한職業의分配

三、物價의均衡

四、民族의優秀性保持及衛生國策의遂行

五、國民精神을汚毒하는腐敗行爲排擊

右決議함

四國軍縮會議 二、三週間休會?

英國皇帝의患候로

【倫敦十九日發電通】確聞한바에 依하면 英政府는 조지五世陛下의 御容態如何에 依하야는 現在開催中의 四國會議를 二、三週間休會하려고하는데 右休會는 아즉公式으로는 決定되지안코 各國代表는 十九日그런趣旨의內意通達을 受한것으로 觀測된다

호어前外相 海相에就任乎

【倫敦十八日發同盟】호어前外相은 巴里提案의 責任을지고 掛冠하고 瑞西에 悠悠自適한 生活을 하고잇는데 倫敦海軍會議終了後 모셀卿이 海相辭任을 할터이므로 後任으로 海相에 就任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호어前外相의 秘書는 右報道에 對하야 十八日午後 말하되 海相後任으로 薦擧된것은 事實이나 아즉 何等正式通知를 接한것은 아니다

英外相쥬네브向發

【倫敦十九日發】英外相이든氏는 二十日부터 열릴 聯盟理事會에 出席키爲하야 十九日午後 倫敦을 出發하야 쥬네브로 向하엿다

國體明徵不徹底 僞裝的擧國內閣

政府不信任案의骨子

【東京電話同盟】十九日의 政友會院內外總務會에서 總括的不信任案을 上程하기로 되엇는데 同案 骨子는 大要 如左한것이다

一、國體明徵問題에 關해서는 政府는 第六十七議會에서 我黨이 提案을 可決한 院議에도 不拘하고 그後의 措置는 자못 不徹底하야 國體의 本義에 어긋바잇서 斷然 이것을 許容할수업다

一、岡田首相은 擧國一致를 標榜하고잇스나 行하는바는 이에 反하야 僞裝的擧國一致이오 그나마 責任政治가 무엇인가를 理解치못하는 行動이다 我黨은 이 重大時局에 際하야 斷然如斯한 政府가 存在라는것을 容認할수업다

一、十一年度豫算案도 所謂跛行豫算이오 兵農兩全을 主張한 我黨의 政策과 相容되지안는 바이스므로 이것을 承認하는것은 許키 難하다

一、外交政策에 關해서보더라도 自主獨往의 氣魄을 缺하야 이 重大한 時局을 擔當할 能力이업다고 認定한다

一、以上 各見地에서 黨은 斷然 現政府와 容認할수업시 이에 不信任案을 提出하는 所以이다

軍縮全權에感謝決議

【電通東京電話】倫敦에서 열린 海軍軍縮會議는 드디어 決裂되 …

蘇中對日挑戰에 軍事費膨脹必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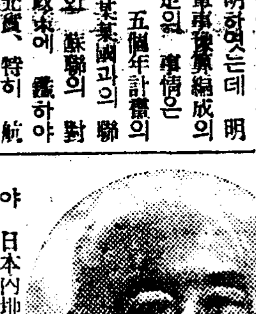
健全財政政策과軍部當局과의

正面衝突은不可避

【東京電話通】政府와 財政當局은 從來로 公債漸減、增稅反對를 二大眼目으로한 所謂健全財政을 標榜하야 幾多의 難關에 逢着하면서 何如튼 十一年度豫算編成을 終하고 特히 高橋藏相은 過般의 軍部會議決裂當時를 機로 右二大眼目을 主張하는所謂健全財政은 將來에도 不變이라는 方針을 闡明하엿는데 明十二年度以降의 軍事豫算編成의 基準이될 國防安定의 事情은

一、蘇聯邦에서는 五個年計劃의 成功及 蘇國과 某某國과의 聯繫可能性等에 依한 蘇聯의 對日滿態度强硬化政策에 鑑하야 日本在滿勢力의 充實、特히 航空機戰車裝甲自動車等은 彼에 比하야 훨신 劣勢에잇스므로 近代科學兵器의 擴充은 不可避의 現狀에잇다

一、在滿兵力의 充實에 關聯하야 日本內地兵備의 整理充實이 必然的으로 要求되고잇다



一、外蒙古、山西、甘肅、新疆을 一連으로한 蘇聯의 極東赤化陣과 滿洲國과 北中政治的經濟的緊密化 南京政府의 依然한 頑迷對日態度等에 鑑하야 日本의 北中權益을 擁護하기 爲한 北中駐屯軍의 擴充强化는 焦眉의 急을 要한다

一、軍縮會議決裂에 基因된 華府條約의 消滅과함께 太平洋防備制限撤廢에 對應하기爲한 措處가 必要해왓다

一、軍縮會議決裂로 漸增傾向에 잇던 海軍費가 다시 增加될것은 必然인것

等의 情勢로보아 十二年度以後의 軍事費가 必然的으로 膨脹을 보게된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런데 高橋財政에 依하면 十一年度豫算으로써 健全財政의 最大限으로 볼밧게업스므로 假令十二年度以降에 相當한 自然增收가잇다하더라도 現狀의 財政方針으로서는 膨脹이 必然한 軍事費의 要求와 健全財政과는 決定的으로 正面衝突을 惹起할것은 勿論인데 이衝突은 十二年度豫算編成上의 難問題가 될것이豫想되므로 벌서부터 如斯한情勢를 考慮하야 財政政策의 根本的改革、豫算編成의 根本的改正 等을 中心으로한 軍事費와 財政의緩和에關하야徹底的研究를開始하기로되엇다(寫眞은高橋藏相)

000134

辭令

經學院副提學 鄭鳳時
命經學院大提學
經學院司成 李大榮
命經學院副提學
中樞院參議 李宣鎬
命經學院司成
經學院大提學 鄭鳳時
命明倫學院總裁

(備考) 右經學院大提學鄭萬朝氏逝去로 一月十八日로 各各任命된것이다

人事·集會

▲今井田總監 休會後議會出席次夫人、池田秘書官同伴 十九日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歸着

▲李勳求氏(崇專敎授) 數日前入京南大門外笑福旅館에 投宿

▲金錫源氏 十八日淸水町三二自宅에서 遭外艱

루大統領의金看板 뉴딜政策의破綻 (一)

韓普容

◇ 루즈벨트大統領은 一九三三年三月四日 經濟恐慌 이 絶頂에 際하야 就任하야 爾來 恐慌打開策으로 New Deal(新政策)을 實施하여왓다. 뉴딜政策은 AAA(農業調整法)로부터 TVA(테낫시流域管理會社法)에 이르기까지 二十六의 新設法規로 構成된것인데 이中에서 가장 重要한 者는 NIRA(國民産業復興法)와 AAA(農業調整法)로볼수잇스므로 이 兩者를 指示하야 뉴딜政策의 二大支柱라고한다。

◇ 現代는 資本主義時代요 米國은

資本主義

가 極度로 發達된 國家이다. 또 米國은 今日 世界에서 가장 富한 나라이오 양키國民은 豪華롭고 떠들기 조와하는 百姓이다. 이러한 모든 點이 相關結托되여 뉴딜政策이 出現한後 이政策을 中心으로 過去三個年 동안에 양키國民은 間斷업시 온世界를 騷亂하게하엿다. 最初에는 뉴딜政策의 出現에、다음에는 뉴딜政策의 全面的活動、그後에는 뉴딜政策의 反對運動、인제와서는 뉴딜政策의 全滅騷動! 그동안의 넌센스劇에 一一히 關心치안흘수업게된 우리들의 跳梁가 可憐하지 마는 如何튼 양키들의 [illegible] 騷動은 不見이라기보담도 可憎하기짝이업다.

◇ 그러나 現制度下에 살게되우리로서는 現制度의

總本營格

인 米國에서 이러나는 經濟的乃至 社會的 重大事實에 無關心할수는업다。記者가 이붓을 들게되는 理由도 勿論 이點에잇다。그러면 또 무슨重大事件이 米國社會에 이러낫는가? 양키들이 웨 또 騷動하기 始作하엿는가? 그것은 最近 三年以來 그들 騷動의 主要根源인 뉴딜政策이 어음에는 根本的으로 崩壞되고마럿다는 事實이다。

◇ 果然 이것이 事實이라면 米國現政府의 全政策이오 루大統領의 生命으로 볼수잇는 뉴딜政策이 淸算되는 이瞬間에 잇서서 이 政策의 正體를 드러내여 그 功罪를 밝히는 同時에 資本制社會의 微妙한 動向을

暴露批評

하는것을 單純히 양키의 넌센스劇에 加勢하는 一驚的役割이라고만 非難할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여기서 紹介批判하려는 뉴딜政策은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뉴딜政策의 二大支柱가 되어잇는 NIRA와 AAA를 主로 하려한다。NIRA(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即 國民産業復興法—略하야NRA)는 一九三三年六月十六日에 制定된것으로 同法에 基한 産業規約은 石油、鋼鐵、木材、石炭、小賣商品、食料品、綿織物、造船、電氣、自働車의

十六産業

十六工業部門及 이에 從事하는 資本家及 勞働者全部를 그統制下에두게되엿다。그리하야 NRA가目標하는바는 一九二六年 水準까지의 物價引上으로 生産者의 利潤을 增大하야 産業을 復興케하는 同時에 失業者를 就職케하야 經濟恐慌을 克服하려는데 잇섯다。

◇ AAA(Agricultural Adjustment Act 即 農業調整法)는 一九三三年三月十六日 議會에 提出되야 同五月十二日 大統領의 署名을 어더實施된 法令으로 뉴딜政策着手의 最初的 法案이다。當時 新任한 루즈벨트大統領은 現下世界的 經濟恐慌은 農産物의

過剩生産

에 依한 物價의 暴落으로 農村購買力을 激減식힌데 基因하야 이것이 工業部門에까지 波及되엇다고 보앗든 關係上 그는就任卽時로 于先 農業調停法案부터 議會에 提出식혀든것이다。따라서 AAA의 目標가 農産物價格引上에잇섯음은 勿論이지마는 『單히 物價引上에만 끄치지안코 農産物 賣價와 農家購入需要品價格과의 均衡을 維持하야 農家의 購買力을 回復할수잇는 程度까지의 物價引上을 敢行하려는데 잇섯다。

◇ 이와가티 恐慌克服의 遠大한 目標와 善意으로 出發한 뉴딜의 二大支柱가 過去三個年間 그 功罪가 어떠하냐?하는 뒤에 말하려하거니와 現政府의

根幹政策

이되여잇는 이兩大法規가 大審院判決에 依하야 解消乃滅되엿다는것은實로 注目할만 事實이라하겟다。即 NRA는 昨年五月二十七日 聯邦大審院으로부터 違憲判決이 잇섯고 AAA는 去六日 同法院으로부터 亦是 違憲判決이나려 이에 루즈벨트大統領의 뉴딜政策은 全滅狀態가 되고마럿다。(繼續)

解散에直面하야 各派、解散對策準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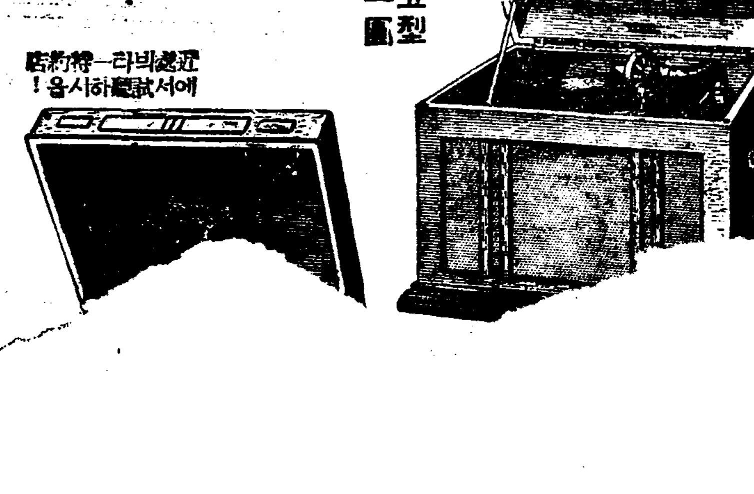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第六十八議會는 二十一日 再開貴族院은 午前十時부터 本會議를開하고 岡田首相의 施政方針演說、廣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이잇슨後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疑에入하야 同成會의 加藤政之助氏가 先陣으로 質問의 第一矢를放하고 衆議院은 午後一時本會議를 開하고 岡田首相、廣田外相의 演說에니어 高橋藏相의 財政方針演說이 잇슨後 政友會代表의 質疑에入할 順序이므로 政友、民政、國同三政黨은大會를開하고 各各總裁로부터 議會에臨할 方針을指示하야 宣言을發表하야 再開議會에對할準備를整頓하엿스므로 二十一日午前十時를期하야 政戰은 本舞臺에드러가게되엿는데 이미 政友會는再開劈頭에 總括的不信任案을提出하기로決定하엿스므로 政府는 質疑에入하기前에 斷乎 解散의決意를하게되야 二十日의 各派의活動은 議會準備라기보다도 解散에備하려는 大會의觀을 呈하고잇다

八面鋒

◇『無能』하다는 別名을붓든 岡田內閣도 『傳家의寶刀』를 휘두를날이 오고말앗다。
◇勝敗를豫斷키는 困難하나 싸홈의色彩가 陰散에서 陽明에 轉換되것만은 事實。
◇松方內閣時代와가티 解散과辭職을 倂行할理는 업지만、
◇橫濱價의 海軍將校가 明徵問題로 떠드는것을보아 政局의 不安은 지금부터 아닌가。
◇總選擧를 압두고도 新人을볼수가업다고 大阪某紙가長嘆。
◇新人이잇다하면 舊政黨이 收容할수가잇슬가、『묵은 부대에 새술을 담을수업다』을엇지하랴。

春夏秋冬 언제든

J一一三五型 全三十五圓



近處의비-타-特約店에서試聽하시옵!

J一一五一型 全五十圓

果樹苗木分讓
京城府外纛島元園藝場
久次米

新祝落成記念
朝鮮料理 すき燒
經濟的大衆向料理元祖
[聚]

胃腸病에 タイト 도
慢性急性下痢症에는百發百中

感冒「百日咳」喘息
제일안전하고효과가속한료법

「감기는만병의근본이다」라는말과가치조고마한방심으로큰일이 난다 특히 작금의감기는 기침과열이심해저서 이것을 기침약이나、해열제로 일시적억압을하면마친내폐염、늑막염으로 변증된다。또지금은 천식、백일해에는제일나쁜때로、찬바람과 간조한공기를마시나면 곳인후가 그르렁거리고、특히발증에기침이나서、환자는물론、가족까지도안면할수가업게되다、이런사람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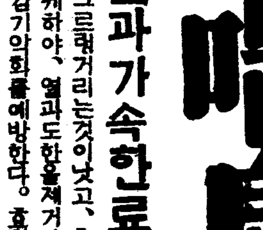
키마스민

을 ... 유명한 今村佛國理學博士가 완정한 양약으로속히 기침을진정하고、담을제하며 그르렁거리는것이낫고、호흡을편케하야、열과도함을제거하는고로 감기의화를예방한다。호흡이속한외에하는부작용이업슴으로소아로인울물론하고전연안심하게된다。또본제의 가장자랑할것은 천식과 신경통의원인이되어잇는탁한혈액을 정화하야、근본적으로치료케하는고로발작과고통을일시적억압하는전변적이 다르다。이런질병으로고생하는사람은꼭저마시고이마스민을잡수고속히전쾌도모하라
○전국약점에잇슴。十日分一圓四十錢 二十日分二圓五十錢
○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研究所

괴롭든기침이 씻은듯이낫다

소생이 거년녀름부터 밤이면기침이나고 그르렁거리고숨차고헤지마는 원래완강한관계로 별노생각도안니하고 지냇더니십수일전부터 아조천식의 발작과가치 해소뒤에 호흡이곤난해늘내서 여러가지로 복약하여보왓스나 좀처럼낫지안이하야 초조하얏더니(中略)우연히 신문광고의、키마스민을 생각하고 곳사다가먹엇더니 그러케 괴롭던해수도、씻은듯이 저바려저서 너무깃버고갑사하야이엽서를냄니다。 東京·金田孝明

頭痛이면 はれやか 로 곳낫는다



新春第四週特別封切
妻よ薔薇のやうに
武藏野くづれ
兒故の春
一月十五日より二十一日まで
永樂町 中央館 電本三五三

尹氏崇專校長職을 今日正式으로罷免

直接管轄當局인學務局서

理事會의今後態度가問題

평양에잇는 북장로파관계 학교의 신사불참배문제는 오래동안 분규를 거듭하드니 기보한바와 가티 십팔일에는 드듸어 평안남도당국에서는 숭실(崇實)학교장인 윤산온(尹山溫)씨를 파면식히엇다 그런데 윤산온씨는숭

사진은 숭실전문학교

실전문학교장을 겸임으로전문학교의 직접감독관청인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이십일부로 윤산온씨의 숭실전문학교장의 직도파면을 식히게되여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되엿것이다

따러서이문제는 더욱복잡화하야 숭실학교의 재단리사회에서는 과연후임교장을 어떠케선임할는지가 문제이다 일즉리사회에서는 윤산온씨의 사직원을수리하지안허실질적으로는 신사불참배를 표명한것임으로 리사회에서 다시신사참배를 할교장후임자를 선정하기는 사실상에잇서 불가능한문제로되엇다 그리하야 이문제는 단순한 현교장의 파면으로 락착이 되다고볼수업는동시에 리사회의 금후태도가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결정식힐 형세이므로 금후 숭전리사회의 동정이 일층주목되여 잇다

學務局長聲明

平壤基督敎北長老派關係學校 神社參拜問題에關한 經緯에對하야는 일즉平安南道當局이 發表한바와갓다 中等程度의學校인 私立崇實學校의校長 平安南道知事로부터 罷免된 尹山溫氏는崇實專門學校長의 職도兼任하고잇슴으로 總督府當局에서도 從來累次其誤解에對하야 懇諭를告한바가잇서 드듸어 그態度를悔改하고 依然히神社에參拜하야 祖先을崇拜하는것은校長으로서 自身이 이것을할수업슬뿐 아니라 生徒에게도 實行식히지안흘 意思를 表示하여왓다 勿論 崇實專門學校는 朝鮮敎育令及 專門學校令에 依하야 設立된것을 朝鮮敎育令及專門學校令에 依하면 國體觀念의 涵養은 其敎育上 가장 重視되는바로 國體觀念의 養成이 國民道德의 根源인 敬神崇祖의念을 厚하게함에 依하야 비로소 達成할수잇는것은 贅言을 不要할것이다 따라서 總督府는 崇實專門學校長으로서도 亦是不適當하다고不得已今日罷免의 措置를 取하엿다 다마조막으로 余는崇實專門學校의 生徒諸君에對하야 此際特히 一層自重하야 國民인 本分을堅持하야 專門學校의生徒로서의 面目을 그릇치는것과 가튼 無事가 업도록 바라며 又 當該學校의 設立者인 財團의理事者並學父兄께서도 此點을깁히 考慮하야 今後에 善處하야 靑年學徒의將來를그릇치지안케하기를切望하는바이다 그리고總督府의學校敎育上에잇서神社參拜에 關한取扱方針 各學校에잇서神社參拜의狀況並 今回問題에 關하야 平安南道及 總督府의 取하여온態度를 明白히하기 爲하야 小官으로부터 同校當事者에警告를 한바잇다

「락씨」電柱와衝突

십구일 오후여덜시 쯤 시외왕십리(往十里)길목에서 네사람의 손님태운 자동차가 전신주(電信柱)에부다처 전복되야 큰소동을 이르키엇이 잇섯다 옥인동(玉仁洞) 백칠번지리갑홍(李甲弘)(二〇)이 경(京)사천오십이호차를 몰고 곽장리로 가다가전주에 부다처든것이라는데 다행이 승객에는 큰상처가 업섯고 자동차에약오십원의 피해가잇섯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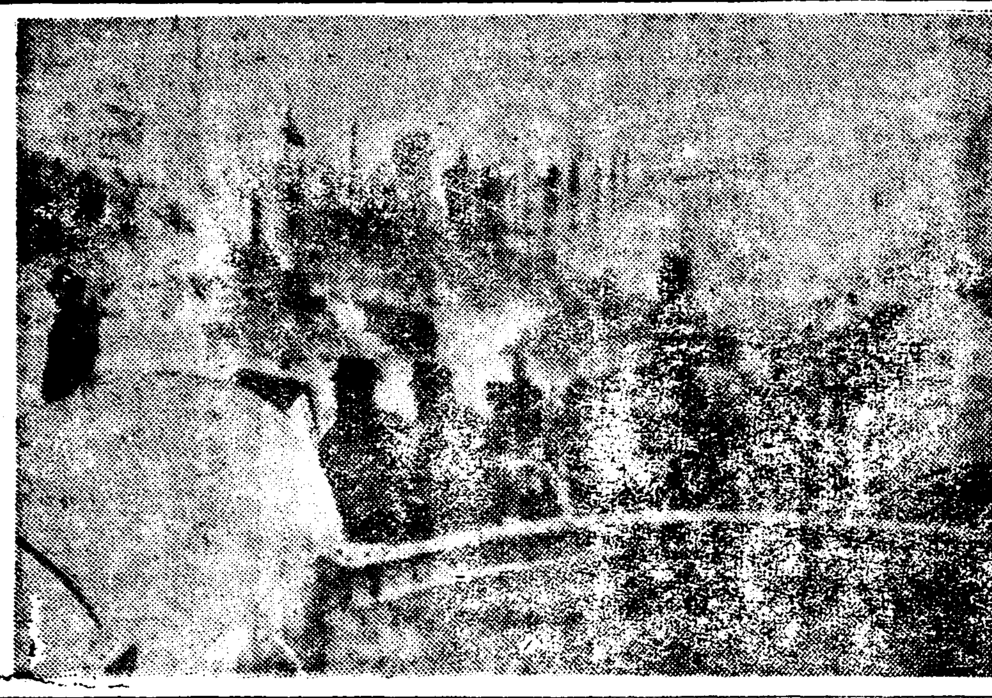
適任校長補任업스면 當局서選任方針

理事會、校長辭任不受理問題

渡邊學務局長談

숭실전문학교장 윤산온씨를 파면하는 별항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도변학무국장(渡邊學務局長)은 사건의경과와 금후 문제에대하여 아래와가티 말하엿다

문제는 작년십일월 십사일이래 이개월을경과하엿는데 당국으로서는 숭실전문 숭실중학 숭의(崇義)녀학교의 당국자에대하여 신사참배는 종교와는 달은것이고 학교교육상 당연히 하여야 할것을 설명하여왓다 선교회측에서도 실행위원이 선정되여 수차면회를하고 간담도하엿스나 듯지안헛다 그런데예수교측의 사정을보면 달은교파는모다 참배를하되 북장로파에서 만하지안흠을 지적하여 반성하기를하고 작년말 삼십일에는따로 대표자를불러서 최종적으로경고를하엿스나 역시 응하지안허 지난십팔일에는 평남도청에서 윤산온씨에대하야숭실중학교장의직을 파면하엿고 다시 숭실전문학교장의직에대하여서는 총독부소관임으로 오늘파면케된것이다 그간 당국으로서는 교장사면을 자발적으로하기를 권하엿더니 윤산온씨는 사임원을 학교재단리사회에 제출하엿섯는데 동리사회서는 사임원을 수리치안허 국에까지 사임원이 제출케되지안허서 당국으로서 파면케된것이다 그후 문제에대하야 교장선임은 동리사회에서 할것이나 리사회태도가 역시 신사참배거절의 태도를 가지고 윤산온씨의 교장사임원을 수리치안흔이상 금후 다시어떤태도로 나올는지 예측할수업다 만일 리사회에서 당국이정당타고인정하는 교장을선임치안는 때에는 총독부에서라도 교장을 선임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그러케된다면 학교재단리사회의 권한을 어떠케하겟느냐 하는것은물론 연구는하엿스나 아직발생되지안흔문제임으로 압흐로어떠케하겟다는것을 지금발표할필요는 업다 그러고 숭의학교에대하여서는 교장이업는중이나 역시근일중에 처리가될것이다



大阪朝鮮部落의 火災慘狀

平壤巡營里에大火

三棟四戶全燒二戶半燒

損害는十萬六千圓

【平壤】 이십일오전네시오십오분 평양부순영리(巡營里)삼번지포목상정기한(鄭基漢)의상점에서 불이나서 상점과상품을 전소하고 이웃인 류경금은상(柳京金銀商)과 호경철물점(鎬京鐵物店)에 연소하야 삼동사호를 전소시키고 일신당안경방(日新堂眼鏡房)과 과자점을 반소하엿다 손해는 약십만오천원가량이라한다 전부 약구만원에 보험에 드럿다고한다 이박게도 십구일과 이십일새벽사히에 평양부내 삼、사곳에서 불이나서 피해가 막대햇다 (以上號外再錄)

吊燈에發"火" "屍體不意의火葬"

【京城】 초상나자 불까지 나서 방안에 잇는 시체를 고스란이 불에 태워버린 참사——시외한지면 한강리(漢江里)이백십오번지 리순동(李順同)(二二)의 모친김씨(金氏)(六〇)는 십팔일 오후 다섯시경에 죽엇는데 이날밤 열한시경 전긔 순동의 집에는 문간에다가 조등(弔燈)을 켜노앗든바 때마츰 사나운 바람에 전긔 조등이 타버리자 불길은 다시 그집 추녀로 옮겨 부터서 그이웃집에까지 연소식히려함으로 급보를접한소활동산서한강리 주재소에서는 윤(尹)소장이한강리에 소방조원들을 총동원식혀진화에 노력하엿스나 부근처에는 우물마다 물들이말러부터서 필사적진력을 한결과손해일백오십여원가량을내고 오전네시경에야 진화하엿다 그런데 이집안방에 노혀잇든 김씨의 시체는 고만이날에 화재로말미아마 까머케타버리고 말엇다한다

市內小火頻頻

아모리 일긔가 치워도약아궁이는 잘단속할일——자그막한 『불이야!』틈에 소방서(消防署)『싸이렌』소리가 세월난다

◇십구일 오전열시반 시내광희정(光熙町)이정목 이백팔십팔번지 한재호(韓載鎬)집 온돌(溫突)에서 불이이러나 피해이원짜리불이잇섯고

◇동일오후 한시반쯤에는 명치정(明治町)일정목 일백사십구번지 강두병원(江頭病院)연돌에서 불이날너와『카-텐』에붓터 오원짜리 불이잇섯고

◇이십일 오전 여덜시에는 시외신당리(新堂里)삼백사십팔번지 륙십일호 김정국(金貞國)의집 온돌에서 집웅으로 불이부터 피

중일본짜리 불이잇섯다

◇십구일 오전령시오십분경에 내외룡동(內龍洞)일백이번지 리은용(李銀用)의 초가집에서 불이이나서 일백삼번지 리주옥(李俊錫)의집까지 연소되엿스나한시사십오분경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 극히적다고한다

慶北聞慶에서도 二十一戶가全燒

原因은殘灰로부터

십팔일 오후세시삼분 경북문경군농암면련천리(聞慶郡籠岩面漣川里) 사백삼십팔번지농업지순덕(池順德)방에서 불이나서 때마츰 강풍으로 사방에 연소되여 부근가옥 이십일호이십륙동이 전소된 오후다섯시오십분경에 진화되엿다 손해는 이천백오십원가량인데 원인은 부억재를 내버린데서 난것이라고한다

接踵하는各地大火

仁川松峴里大火

十九棟卅九戶全燒

松枝三萬餘束도一時燒燼

貧民窟로情景慘憺

【仁川支局電話】 인천부송현리(仁川府松峴里)오십륙번지 안태실(安泰實)의 솔가지싸허둔 나무가리에서 이십일오전령시삼십분 불이이러나서 솔가지 삼만다발과 가옥십구동삼십구호를 전소하고 오전열한시경에 진화하엿는바 원인은 매우 모호한바잇서 작년이맘때에도 전기 불난장소와 꼭가튼장소에서 원인모를불이 이러낫는데 금년에도 또이와가튼 큰 불이 이러낫스나 원인은 아즉 자세이 알수업다한다 그리고 전기 소실된가옥들은 전부 빈민굴로서 비록 손해는 륙천원밧게 되지안흐나작금가튼혹한에 리재민들의 참상은 참아볼수업다고한다

盈德에山火

廿餘里延燒

四日間을繼續盛燃

【盈德】 경북영덕군지품면 삼화동(盈德郡知品面三和洞)과 속산면화천동(知品面華川洞)외 네동리의 삼림에 십륙일오후두시에 불이이러나서 사일동안을계속하여 불이붓는중인데 발서이십리가 연소되엇다 방금 소관경찰서와 소방대등이 총출동으로 진화에 노력하고잇스나 풍세(風勢)가강하야 진화될것갓지안타한다

獅子庵强盜團

龍山署에드듸여一網捕盡

작년팔월초단생날 세시와 십이월이십팔일 오전령시사십분무렵에갈처 시흥군동면상도리(始興郡東面上道里)에잇는 사자암(獅子庵)주지민영근(閔永根)의 집에 드러가서 주인과 그가족 여덜명을 삼바로 결박하고 작난감 권총과『아카시아』몽둥이로 위협한후 현금삼원팔십일전을강탈해간 네명으로된 강도단의그 후행방에 대하여는 소관 영등포서(永登浦署)는 물론시내각서에서 엄중탐사를 하고잇든중마츰내 지난십구일밤에 그일당네명이 룡산서원의 손에 모다붓잡히고말엇다

그들은 황해도 연백군연안읍(延白郡延安邑)전과네번 백룡호(白龍虎)(二〇)양주군로해면 창동리(楊州郡蘆海面倉洞里)이백칠십이번지 전과한번 권흥길(權興吉)(二〇)시내 이촌동(二村洞)에사는 전과 여덜번 리흥천(李興天)(二〇)외 한명으로 룡산서원이 음력년말을 경계하다가 어데로부터 단서를 어더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여 백룡호외 한명은 서대문서(西大門署)압해서 권흥길은 어성정(御成町)백십삼번지 박치선(朴致善)의 집에서 그리고 리흥천은 관수교(觀水橋)다리미테서 자고잇는것을 한참동안 격투끄테 붓잡어가지고 그서로 데려다가 엄중히 문초한결과 마츰내 그런사실을 자백한것이라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자암 민영근의 집에 드러가든 그뒤에 시외 창의문(彰義門)박 세검정(洗劍亭)압헤 잇는 소림사(小林寺)라는 절에도 무기를 가지고 드러가려든 사실이 나타낫다한다

뒷거리의誘引魔群

被害婦女數十名

◇鍾路署檢擧에着手

이십일 새벽에 시내 종로서(鍾路署)사법계 횡전(橫田)형사부장의 일대가 시내장사동(長沙洞)의 모인사소개소를 습격하야중개업자 신성림(申聖林)리래환(李來煥)등 네명을 인치하여다가부녀자유괴혐의로 엄중취조중인바 그들은 만흔사람을 식골로 노아가지고 대대적으로 각지의농촌의 젊은 부녀들을 유인하여다가 각지에 팔아먹은 모양이로 우선그들손에 걸려서 서울까지 올라와잇던 식골부녀들이달성(達城)에서온김월순(金月順)(一八)광주(光州)의박금순(朴錦順)(一七)김제(金堤)의 강선옥(姜善玉)(二〇)광주(廣州)의 리거순(李居順)(二〇)청양(靑陽)사는림금련(林錦蓮)(二〇)등 십오명에달하야 방금 그서에서 이들녀자를 소환하야 참고조사중이며그들의 련루자들도 상당히 만흔모양이라고한다

◀訂正 本紙 十二日付 夕刊二面에 揭載한 慶南穀物檢查官 瀆職事件記事中 檢查主任 田中傳이라는것은 神部傳의 誤記이므로 玆에 訂正함

天氣豫報

七七三미리의高氣壓은 中國內陸에잇스며 氣壓은 朝鮮을거처 本部方面에 나저지고잇다 滿洲、朝鮮은맑고 日本內地는 흐리다 朝鮮海峽과 裏日本은 北風이 强하며 一般的으로치위는 풀어젓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大體로 日氣는 조흐나 一時는흐리다 京畿道全區도 大體로 日氣는 조흐나 一時는 흐리다 明日도 今夜와갓다

昨日 最高 零下四度八 最低 零下十四度三
今朝 最低 零下十四度七
今日 正午 零下七度一

運動競技

江界軍連戰連勝

第一位가尹君、次位는劉君

氷上選手權大會終幕

朝鮮體育會와 東亞日報社共同主催의 第十二回全朝鮮氷上選手權大會는 十九日午後零時半부터 漢江링크에서 열렷는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江界의尹明洙君은 이날 千五百米레-스에 二分三十九秒九로 同大會新記錄을 作成하엿스며 二千米릴레에는 江界팀이 三分三十一秒二로 優勝하야 氷上의都! 江界軍의 獨舞臺를 이루엇다 그리고 個人選手權 順位는 第一位에 尹明洙(江界)君、第二位가 劉仁順(江界)君、第三位에 金基滿(義州)君이다 이리하야 江界軍은 지난十七日에 擧行된 本社後援의 全朝鮮都市對抗戰에서도 斷然 優勝한 餘勢로서 氷上朝鮮의 일날을 위하야 크게 氣焰을 吐하엿다

◇寫眞은 릴레에優勝한 江界팀

◇千五百米(타임-레-스)

【第一組】 1尹明洙(江界)二分三九秒九(本大會新記錄) 2劉仁順(江界)二分五九秒五
【第二組】 1鄭廣彥(新義州)二分五七秒一 2金基蘭(義州)二分五八秒五
【第三組】 1鄭基燕(平壤)二分五九秒一 2金永吉(三務)三分一秒三
【第四組】 1白永哲(京城)二分五五秒九
【第五組】 1李重顯(京城)三分一八秒四
【第六組】 1韓台相(咸興)三分一一秒八
【第七組】 1丁龍福(仁川)三分一二秒

【千五百米順位】 1尹明洙(江界) 2劉仁順(江界) 3白承哲(京城) 4鄭廣彥(新義州)

二千米릴레 (타임레-스)

第一着=江界팀(金永吉 金河吉 劉仁順 尹明洙)三分三一秒二
第二着=三務팀(咸枝一 金承濟 高麗昌 邊成慶)三分三八秒三
第三着=曹寧팀(金裕七 孫泳煥 洪性宗 白承哲)四分四秒七

◇一萬米(오픈코-스)六人出場
第一着=尹明洙(江界)二一分五三秒四
第二着=金基滿(義州)二一分五五秒五
第三着=劉仁順(江界)二一分五四秒F

◇個人選手權順位
第一位=尹明洙(江界)二二七、六 一〇
第二位=劉仁順(江界)二三三、六 一〇
第三位=金基滿(義州)二三五、九 三五

朝滿氷上對抗

朝鮮代表六名決定

朝鮮、滿洲對抗氷上競技大會는 來二月二日 鴨綠江銀盤우에서 擧行할터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朝鮮氷上聯盟에서는 朝鮮代表로 다음의 六名을 選拔派遣키로되엿다

◇選手=金河吉(江界)劉仁順(江界) 尹明洙(江界) 邊成慶(新義州) 李英甲(新義州) 金基滿(義州)

延專하키今夜出征

來二十四、五兩日間 東京芝浦링크에서 열릴 明治神宮及全日本選手權大會에 처음出場하는 延專하키部一行은 二十日午後三時에 京城驛發列車로 壯途에 오르게되엿든바 事情에依하야 二十日午後十時五分發車로 京城을떠나게되엿다한다

女子氷上大會 廿六日、淸凉里링크

朝鮮新聞社主催의 第二回全鮮女子올림픽氷上競技大會는 來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競技種目은 千五百米、三千米、二千米릴레 學童部에는五百米、千五百米、二千米릴레 期日은 二十四日까지라한다 申請

高麗卓球聯盟理事會

高麗卓球聯盟理事會에서는 十八日午後二時부터 朝鮮中央基督靑年會室에서 열고 다음의 諸般事項을 決定하엿다

一、事務所를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에置함
二、朝鮮體育會에 加盟하기로함
三、常務理事로 田景鎭(商銀)、馬駿模(鷄林俱)曹明煥(總府)三氏가被選
四、臨時理事로 馬駿模(平壤)李順佑(開城)鄭敬敎(大邱)三氏를 追選함
五、顧問及評議員會를 二月中에 開催할것
六、各地方代議員會를 開催할것

孫、柳、南三君을招待

方今 鎌倉에서 世界올림픽制覇를 꿈꾸며 連日 練習中인 孫基禎、柳長春、南昇龍三君의 慰勞와 激勵를 뜻하고 東京在留學生들로 組織된 三五陸硏會에서는 同會 月例會를 兼하야 二十日 午後一時부터 神田南山莊에서 前記三選手를 招待할터이라 한다

東西對抗蹴球

三對二로關東敗

【大阪電話追送】 第十一回世界올림픽代表選手의 最後的詮衡試合을兼한 第五回東西對抗式蹴球戰은 十九日午後 二時五分부터 南甲子園運動場에서 杉村(主)松井 玉木(線)三氏審判下에 關東先蹴으로 開戰된바 前半戰에風勢를利用한 關西二點을 先得하야 『리-드』 後半戰에드러가 關東追擊猛烈하야 結局三對二로關西軍이 快勝하엿다 이로써 兩軍은 二勝二敗一無勝負의 同勝率로되엿다

關西3(1……2 2……0)2關東

運動界人事

◀江界氷上代表一行은 監督林寬道氏引率아래二十日午後十時五十五分 京城驛發、退京
◀韓台相氏(咸興氷上軍監督)二十日 午後十一時 同上

肥滿劑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조흔家庭工業 돈버리
富貴의會社意義잇는大事業進趣
第一 第二
株式會社

偉大한三大工業依賴함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塚農機製作所

新民謠(八一八八) 流轉十年 / 모렛벌十里 盧碧花
流行歌(八一九〇) 思鄉의 썰매 崔南鏞 / 靑春의 노래 姜石燕
流行歌(八一九三) 봄처녀 姜石燕 / 울면서갈길 盧碧花
(八一八九) 長恨夢 / 長承 九雲夢 香傳
(八一九一) 新調 新調 가래노타 부창
(八一九二) 南道雜歌 新城主 아방리 푸령타
(八一九四) 노래詩調 平勸 滿 歌調 李映山紅

콜럼비아 포-라-블
本器 四大히트 「希望 落花岩 술주어 빗나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萬國秘法寶典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現代出版社

合本 一圓 各冊分は十五錢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まちがひ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無代進呈 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川町 現代出版社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이제일이요

超스피ー드空中征服時代(공중정복시대)다 이 사진은 비행기의가는 길을잘살펴서고장업시 속력을내는 광경이오 병에도 위선약을 잘선택하야 치료하여야합니다 림질약도 하도만흐니 다른약에 속지마시고 제일 속하고 안전하고 신용잇는 약 구로벨을 쓰시오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ー루)도 만히 들엇고 세계적 대신 발명한 약제도 전보담 만히 더느엇답니다

◇남녀만급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슴소태、월경 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 보고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며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 제일먼저 신발명한(Kurob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 틀임업는약이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환자의 안심과신용을엇기위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 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약효가강렬하야 여러해된 고질특히 재발한 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산증)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판염뇨두협착등에속코

二、이약은 다른약과 가티지리하게 오래동안먹고만 급성간에 오래된 고질만성증이라도 일주일내로 효력을보고

三、림질약 치고위장이 안상하는 약이업는데구로벨만은 조금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슴으로위장이약한분이 만이먹어도트림하나안난다는말은효험본여러분의 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다른약을오래쓰게되ㄴ 그동안조섭이곤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약성에 구원、만성괴라 제증에오원、대하증、냉병기타부인병에오원、급성과부인오즘소태에삼원、지방송료、선금십오전 대금인환은삼십오전 (오원이나삼원이나다일주일분)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 안맛거나광고와 틀리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 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 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電話光化門三三四四番 振替京城四九五(▢)番

이이는엇저하야 장님이되엿나 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눈이멀고 태중에림질대하증에 걸니면 눈먼아희를난는다

◎림질약은 신성당이 독판치섯다고 그전부터 입달닌사람이면다ー 말한다하오 (다른약은 안그런가)

◎하는수업다 결국 질낫는 약이 독판칠수밧게

◎십여년된 고질이 나엇다 는감사장이 엇스면 절대로 신용마시오 갑싸고 화려만 고경품 만히주는약은 결국갑싼 [illegible]이지오

◎당신은 하도만히 감사장엇는 약에 속아 [illegible] 경험 [illegible]잇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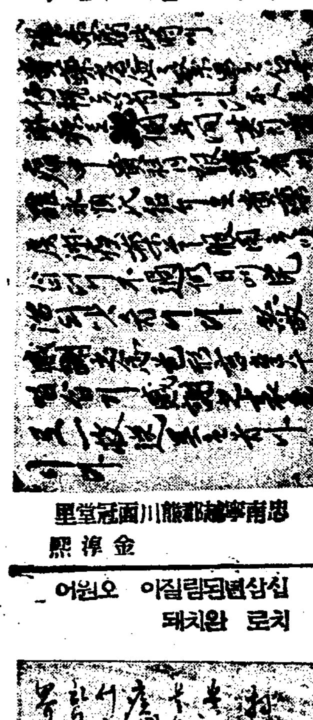
◎그러나 [illegible] 감사장을 위조(僞造) 하기쉬운 [illegible] 수미면 사구 [illegible] 위조라고 [illegible]에서 [illegible] 만합니다

그러니 이감사장 [illegible]은 절대 [illegible] 주시오

00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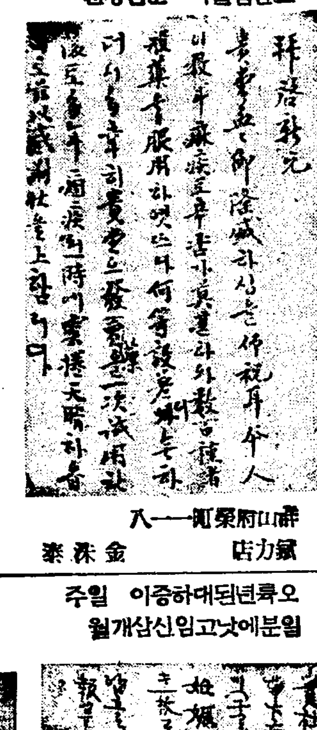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 옥동자를 나십시오

귀사 월보독자소개로 칠개변된림질이 봄눈가티업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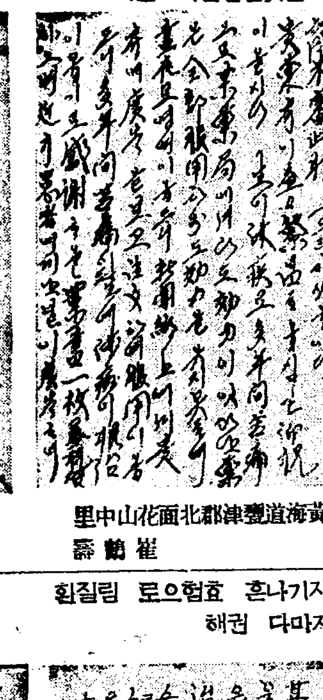
忠南寧▢郡龍川面冠堂里 金濬熙

수백종약으로 안낫던 완고한림질이 운권청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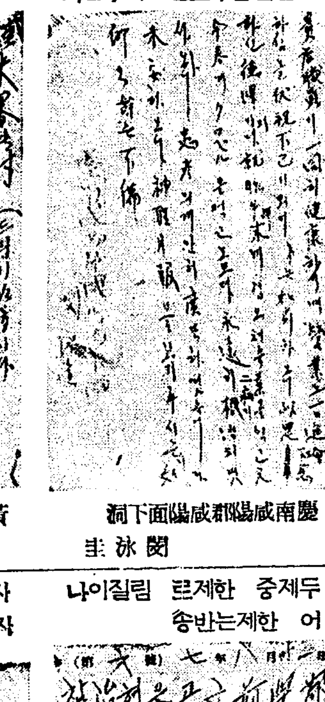
釜山府栗町一一八 金洙榮 [illegible]

약방에서 조타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 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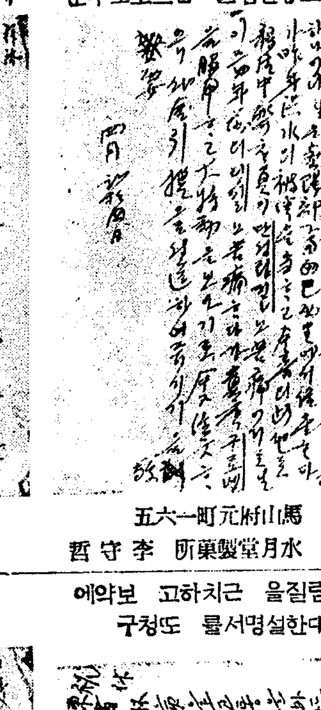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鶴壽

작년에는 체증에 경오를 금춘에는 림질을 구로벨노 아주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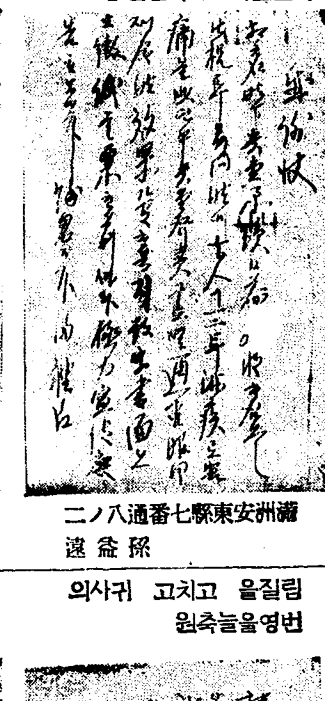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수년전 신효보고 만성림질에 고통한점원 땀으로또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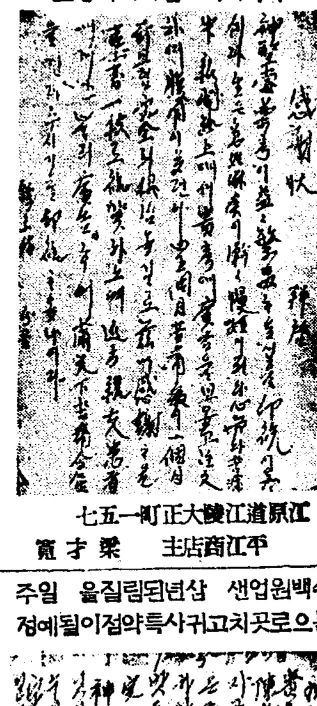
馬山府元町一六五 水月堂製藥所 李守哲

수년된 림질이 월주분으로 측효보와 극력선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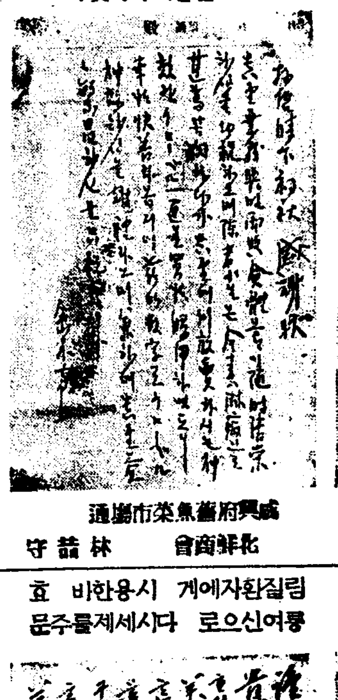
滿洲安東縣七番通八ノ二 孫益遠

사오개월 고통한 림질이 다나어서 친지에게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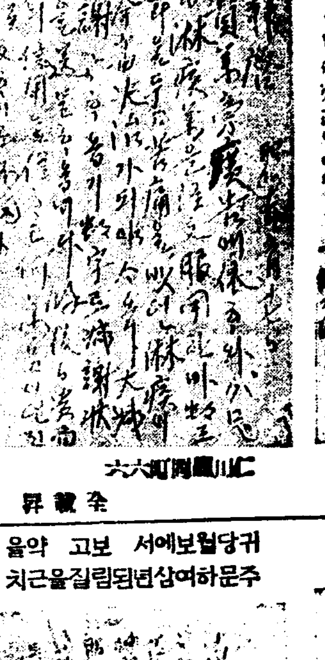
江原道江陵大正町一五七 平江商店主 梁才寬

고통에고통하던 림질 어톡 한갈에다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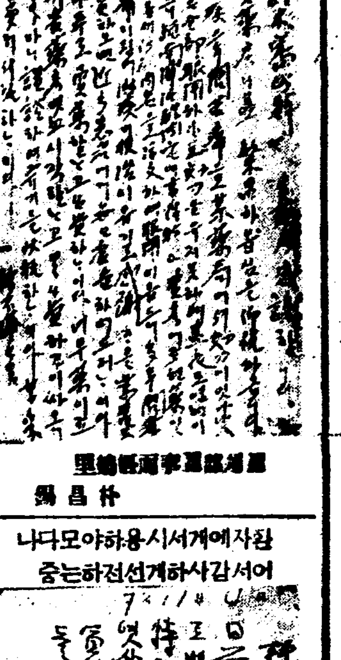
咸興府番魚菜市場通 北鮮商會 林詰守

수▢▢ 림질이 완쾌되여 신성광약이라면 다 신용하게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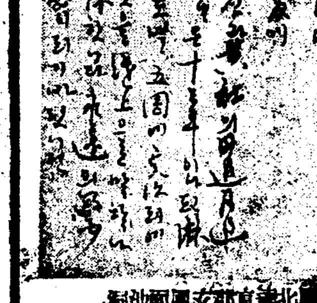
仁川▢▢町六六 金載昇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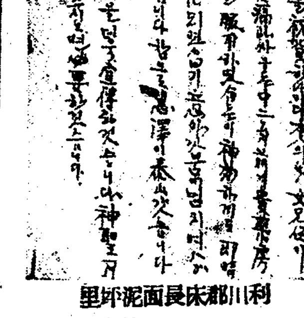
[illegible] 朴昌錫

십삼년된림질이 오원어치로 완치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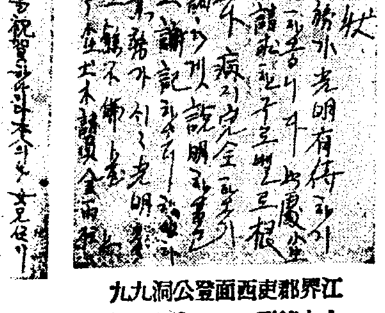
[illegible]

오년된대하증이 일주일분에낫고임신삼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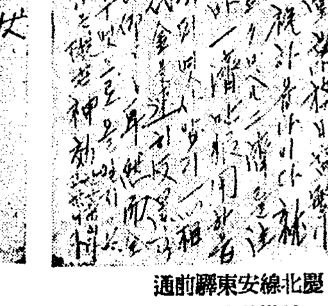
利川郡長床面泥坪里 柳慶秀

자기나흔 효험으로 림질횐자마다 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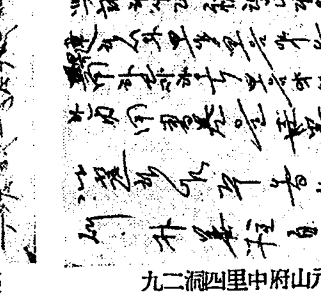
江界郡吏西面登公洞九九 金丙杜 土木▢▢

두제중 한제를 림질이나어 한제는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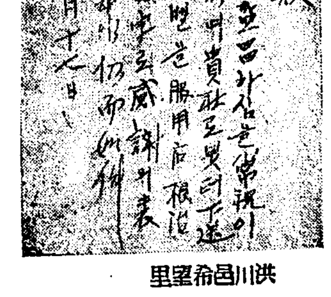
慶北安東驛前通 誠進社主 孫極壽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 대한설명서를 또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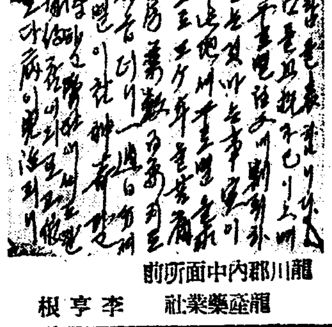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善杜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 번영을늘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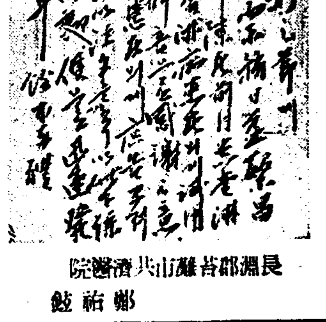
洪川邑希望里 裵泰一

수백원업센 삼년된림질을 일주분으로곳치고 귀사특약점이될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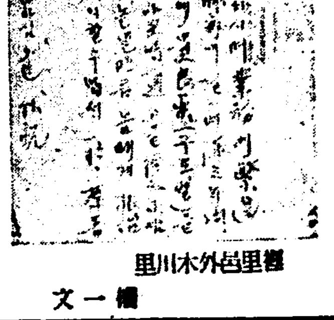
龍川郡內中面所前 龍産藥業社 李亨根

림질환자에게 시용한비 효를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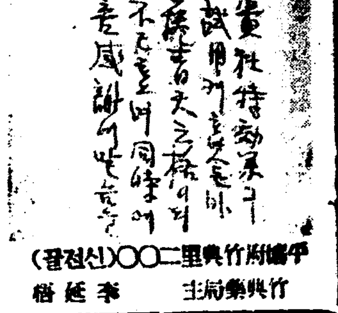
長湍郡離山共濟醫院 鄭祐鉉

귀당월보에서 보고 약을 주문하여삼년된림질을근치



▢里邑外木川里 ▢一文

환자에게서 시용하야모다나어서 감사하게선전하는중



竹▢府興里二○○(신전골) 竹興藥局主 李延楷

家庭

심술구진치위가 살림을탈냇슬때
독이 터지고、간장이 얼고、또……
자ー 어쩌면 조흘까요

치위가 넘어나 지독해 노호니까 박갓에다가 내노흔 것은 말 할 것도 업거니와 부엌에 간수해두고 구덩이에 무더 둔 것까지도 꽝꽝 얼어 버린 것이 만습니다。간물은 얼지 안는다고 하지요만은 북쪽바람마지로 장독대를 맨들어 노흔 대에서는 간장까지도 얼리지 말란법이 업습니다。한번 얼어 부트면 그릇은 깨지기 쉽고 음식가음은 맛이 업서집니다。안악네의 알뜰한 마음에 아까웁기 거지업는 노릇이오나 이왕지사 할수 업는 노릇입니다。그러나 어떠케 좀 잘 해서 손해를 적게 볼수는 업겟습니까? 그것이 요사이 안악네께 가장 긴요한 지식이 아니오릿가?

위선 그릇에 대한것을 말슴하겟습니다

항아리나 독개그릇 속에 담긴 물이나 장이 점점더얼어 부러다가는 깨지거나 금이가기 첩경입니다。그것을 갓금갓금 보살피어 얼엇나 안얼엇나를 자주 주의해야 합니다。그러는중 고만 얼어붓지를 안햇습니까? 그러타고

그것을갑작아

뜨겁게 하다가는 더 얼는깨먹지안습니까? 그러니까 적은것은 양지쪽이나 부엌안으로 옴기어노코 큰것은 가마니나 집단으로 잔뜩싸서 더 얼지 안케 하는것만 갓지못합니다。미리 얼지 안토록예방삼아 그러케 싸놋는다면더 조흣습니다。

유리나 사긔그릇。그역시 갑작이 뜨거운 룸에 담그거나 화로불에 쪼이다가는 봉변을 합니다。미지근하게하야 차차로 녹여야 합니다。그뿐이아니라 요사이 박게 두엇든

유리나사긔그릇

은 속에 무엇이 얼어 붓고 안붓고간 제자체만이라도 잔뜩얼어잇습니다。멋모르고 그런그릇을 뜨거운데 노커나 뜨거운물에 너흐면 영낙업시 쨍하고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식에 대한 것을 말슴하겟습니다。

간장。간장도 얼엇다가 녹으면 맛이 업고 또 맛이 변하기 쉽습니다。

날따듯해지거든

다시 한번 다려 두어야 합니다。

김장。김장도 아조 꽝꽝 얼엇다가 녹으면 그정도의 차이가 잇스나마 물론 재미적습니다。차라리 무처 먹거나 장에 끄려 먹는이만 못한때잇습니다。

계란。얼엇다가 녹은 계란을 가지고는

국에다가풀거나

젓국에 찌거나 해야 제일 조흣습니다。

고기。얼엇다가 녹은 고기는 고치장이나 되장의 꾸미로넛는 것이 제일 조흡니다。

무。겨울에 먹을나고 구덩이에 무든 무가 죄 얼지 안습니까? 그 무로는 음식을 해도 맛이 업스려니와 좀날이 풀리는때는 고만 썩어버리게 됩니다。그런데 그언무를

좀더얼려가지고

맷술가튼데 꼭 눌럿다가 나물을 무치지 안습니까? 마치 도라지비슷하야 운치잇는 나물이 됩니다。

두부。언두부는 속이 뭉얼뭉얼하야 보기에 좀 별스럽니다 그두부를 간장에 조리거나 기름에 부치거나하면 보통두부와 달러 그역시 운치가 업지 안습니다。

오늘이 大寒
인제『입춘』만지난면 치위도다간다

양력으로 일월 스무날이나스무하로날 받듯이 대한이 드는테 올해는 스무하로날 들엇습니다。대한이라고는 큰대ㅅ자칠한ㅅ자로 글짜의 뜻과가치 일년중 아조 제일 치운 도막을 가르치는 것입니다。그러나 녯말에 이르기를 칠지 안한 소한이 업고 치운 대한이 업답니다。대한만 하야도 벌써 치위는 한 고개를 넘어서서 뒤로 물러서는 모양인듯·합니다 이아프로 치위가 남앗다면 립춘박게 업습니다。경칩 치위에 장독이 언다지만은 그것은 풍치는 말이요 립춘만 지나서면 우수니 경칩이니는 문제가 안됩니다。치워 치워하든 것도벌서 녯일 이제부터 봄이 되고 다시 녀름이 되야 더워더워부르짓게 될것입니다。치위걱정이 덜리는 것은 당장 조호나 장차의 더워걱정이 미리부터 태산 갓습니다。

오는二月一日밤! 第八回 婦人歌闘大會
회비는 매인압헤 불과 이십전 / 밤참과 상품은 고루고루 진정

매년마다 음력정초를 마저서 경성녀자긔독교청년회(京城女子基督教青年會)주최와 본사학예부의 후원아래 가투대회(歌鬪大會)를 열어서 가정부인의 하로ㅅ밤긴거운 노리를 이루어 왓거니와 금년 제팔회대회는 이월일일(음력정월 아흐레ㅅ날) 하오일곱시 시내 서대문정 녀자긔독교청년회회관내에서 열기로 되얏습니다。금년은예년보담도 좀더흥미잇시하고자 주최와 후원측으로 부터 상품과 밤참을 긔중하는것은 물론이요 주최측으로 부터도 상품을 준비하야 회원매인아페 골고로 상품이 돌아가는동시 일이등에 입선하신분에게는 특별한 상품을 올리기로햇는데 단지인원수가 만흔즉도리어 번잡만스러울까、오십명으로 제한하야 정원이상 절대사절키로되엿이 적지안한 유감입니다

회비는 단이십전이요 신청코한은 일월삼십일오후네시까지입니다 만원이되기전 빨리녀자긔독교청년회로 신청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차지

야단들이다

야단들이야。

큰옵바는 연날린다고 뒷동산에 뛰어올나갓고、가운데 옵바는 팽이돌린다고 개천으로갓지、작은옵바는 제기찬다고 행길에서 야단낫다。집이비엇스니 누가보나。올타 우리애기하고 나하고보지。

부ー라 부ー라。

(글쓴사람 박치호)

화류병의념려

문 저는금년 이십세된 청년이온대 이년전에 엇떤 화류계의 녀자와 관게를한후 저는아무 고통도 밧지 아니하엿는데 저의처는 그후부터 매일매일두통과 허리가 압흐다 합니다그리고 아직도 어린애하나도나치 못합니다 만일이것이 매독이라면 엇더케곳처야 되겟습니까? 속히 회답하여주기를 바랍니다 (市內一讀者)

답 화류계녀자와 관계하얏다고 반다시 화류병에 걸니는것은아닙니다 더구나 아모고통이 업섯다하니 부인에게 두통이나 요통이잇다하더래도 그것은 달은병일것입니다。아즉 수태도못하얏다하니 혹부인병이 잇슬지도 모르니 전문의에게 진찰을 하야 불임증의 원인을 아라내가지고 적당한 치료를 밧도록 하십시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소변볼때아퍼

문 금년이십이세의 처녀입니다 일개월전에 고온도에 목욕을한후부터 소변이자조보고십흐며 낫에밧게나가단니면 좀나도 밤에 더운데서자면 더한데요 소변본후에는째릿ー하고 압흡니다 소변이자조십흔때에는 거기열이 생긴것가티압흡니다 의사에게 진찰을밧고 약을먹으나 시원치안습니다 무슨병이며 어떠케하면 나을가요 (平壤 고민生)

답 뇨도방광염인가봅니다。녀자는 대변속에잇는 대장균으로 말미암아 방광염이 잘 발생됩니다。더구나 처녀의 방광염은 대개가 대장균으로 됩니다 다음 처방을 복용하십시요。

一、우와우루시葉煎(八、〇)
우루도로핀 一、〇
右四(一日分量) 食間分服
(大學病院 產婦人科 金⋯⋯)

잠만고기억력업서

문 금년이십일이세 긔혼남자인대 소학교시대에는 긔억력이 조와섯는대 이삼년전부터 아조 감퇴되고 건망증이 심합니다다그러고 잠이심히만히오며 다만이분동안이라도 보통대로잇슬수가 업스며 각금길을 가다가도잘못 가게됩니다 무삼변일까요 (扶安은初生)

답 어렷슬때에는 긔억력이조왓스나 지금은 그럿치안코 건망증이생기고 잠이심이온다고요 이런증세는 발륙이 정지되얏슬때 또는방사관계가 심한때되기 쉬웁니다 혹은 뇌수에 종양(腫瘍)이발생할때도 그런일이만흐오니 한번 진찰을 바다보시고 치료를 정하게하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타액에도여러종류

문 침(唾液)도 혈액(血液)과 가티 형(型)이잇다고하는대 혈액과 가티 자녀들의 타액에도 그부모의 형(型)과 갓습니까 (알고저생)

답 장긔천전교수(淺田敎授)와 길전(吉田)씨의 연구의결과를보면 타액에도 혈액과 가티 동종응집소(同種凝集素)와 동종응집원(同種凝集原)으로구가 포함되야잇다하오며 역시혈액과가티 사종형(四種型)으로 구분할수잇다합니다 그럼고로 타액도 혈액과가튼 관게로 그부모와도 일정한관게를 가지고잇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 털장갑빠는법 ○○○○○

털장갑은 물에너허빨면 곳주러드러서 못쓰게됩니다 휘발유두홉에다벤진을 술잔에 한잔쯤타서 잘섞근다음거게다 장갑을당거서 뒤적거려가며 꾹꾹 눌너빠십시요 때무든것이 잘빠지지 안흘때는 손에다 장갑을 끼고 만드러노흔 휘발유를 무친다음 비단의복 몬지터는 부드러운솔로닥거빨면 아주곱게 빠집니다

모。피。세。탁。법

모피세탁은 세탁하기전에 한시간쯤 볏해말려서 솔로 몬지를 말끔히털어버린다음 휘발유두홉과「벤진」한술잔을 너허서 근것을 뿌려바른다음 비단으로 보드러운 솔로 털ㅅ결대로 탁락쓰러서 볏해말리십시요

거위의목베기

세상이 넓은만치 사람사는 곳마다 별별기괴한 일이다 잇습니다——서서(瑞西)란나라 마르틴이란지방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거위의 목을빼는 례식이지금도 한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것은『쥬르제ー』란곳ー그곳공회당압헤서열린 거위의 목을빼이는례식이니 거위목을베는사람은 머리에 괴상스런탈바아지를쓰고 시퍼러캐간 긴칼을휘둘르다가 여러사람들압헤매달려잇는 거위의길다란 목을 썩비어버립니다 례식이란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구경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꺼리라고 야단들이니ー엇잿든잔인한풍속이지요

當選小說 寺下村 (12)
金廷漢 作 / 安夕影 畫

『이사람 관서、설마가 사람죽이는 겔세。생각은 무슨생각! 자네 파서나 마찬가지지。』

록 쏘는놈은 일본서 단꼬(炭坑)밥 먹고온 욱은깨쟁이 또술이。

이욱고 술이 끗낫다。목까지 붉어가지고 나서는 간평원들。금태안경쓴 진수마누라가 문바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자、중들은 진수의 뒤를·따라 단장과 함께 비틀거린다。그들의 뒤에는 무뚱이 가티 얼골이 누른 소작인들이 최수와가티 묵묵히 따른다。

술취한 양반들에게 간평이 될리업다。그들은 농부들의 말은 들은채만채、논두렁에는 들어서 보지도 안코、다만 진수와 알아듯도못할 일본말을 주절거리면서 길로만 지날뿐이다。잇다금 단장을 들어 여긔저긔를 가라치며 혹은 수첩에 무엇을 적어너으면서、

그러케 허수아비처럼 비틀거리며 들깨의 논견을 지날때엿다。

『왜 모밀을 갈앗소?』

기봉은 들깨의 인사를 밧는 대신으로 이러케물엇다。

『헛수잇소。』

들깨는 한손에는 콩시대、한손에는 낫을 든양으로 엽적게 대답햇다。

『모밀은 잘되구먼。』

『될요、이것도 늣게 뿌려서…』

하고、들깨는 기봉의 다음말을 기다렷다。

그럴때 다른놈들은 앞두렁으로 가본다。거긔서는 애기를등에 엇은 들깨의 안해와、아누이가 방브게 콩을 끈코잇다。더아는 열녀살의 처녀로서는 랑만큼 억개부들기가 버러지고 도라안즌 뒷모양이 퉁퉁하다。자긔뒤에 모르는 남자들이 와선것을 깨닷자 풀숩너슨 수건밋으로 엿보이는 두볼이 저윽히 붉어진듯하나、낫을 든손은 여전히 쉴새가 업다。

『옵바 왜 암말도 안햇소?』

술들이 떠나자 더아는 옵바를 남으래듯이 돌아보앗나。

『무슨말을해?』

『세좀 매지말라구 하죠?』

『그놈들 매는걸 어떠케?』

『그럼 옵바는 모밀간세도 바칠레유?』

더아는 수색을 띄우고 뭇는다。

『먹고남으면 바치지!』

들깨는 픽 웃는다。그는 언재 자긔가이러케 보잘것업는 배ㅅ장을 가지게 되엿는지 속으로 놀래면서。

더아는 옵바의 대답에 확실히 어떤 밋어운것을 느겻다。그러나 꽁문이에서 낫은 뺄려고도안코 담배만 빽ー빽ー 피고안잣는 옵바의 마음속은 결코 그러치를안엇다。그러다고도 모밀밧을 바르게 날으던 밤에숭이모양으로 조금하지도 안엇지만。

그날저녁 동내사람들은 진수의 집 사랑에 불려가서 진수의 입으로 부터 제각금 소작료를 들어알엇다。그리고 놀랫다。사형선고나 밧은드시。

그러나 가장 현대적 사유인 소위 평의원 압헤서 더러 불평소리를 하다가는 보다큰 손해가 묘하게 도라오기때문에、농부들은 모다 대답사 헤ー!참트록 다렷어도 소작료도 안되겟네。」떠워의 걱정말이나 중얼거리면서 묵묵히 돌아선다。

들깨와、철한이들—교풍회장 쇠다리주사의 말을 빌리면 등내서 코세고 어굿난놈들은 발서 벌룻이 하나둘 야학당으로모나 한돗이 들어서마치 외논이여갓다。어느새 예왓는지 고서방도 작은방한쪽구석에、다른날보다 더 긔운업게쭈구리고 안자잇다。

이욱고 봉강아지가튼 애색기들을 돌려보내고、죽은깨쟁이또술이가 큰방으로부터 돌아왓다 더펄더펄자란 머리우에 분필가루를 허여케 쓰고。그리고서는 세삼스로서는 엄청나게 늘어보이는 얼골이다。

이러케 소위 교세측들은 저녀마다 거긔모여서는、그날그날의 피로를 이저가며 상담도 하고 롱담도 하다가는、또쫓어코부터 단꼬이약도 듯고、여긔저긔서 이러나는 소작쟁의이약도 듯는다。더욱이 소작쟁의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자긔들의 일가티 입을 다물고 들엇다。

그날저녁에도 그들은 이슥도록 거긔 모혀잇섯다。그리다가 마침내、자긔들은 나올수업는 소작료를 어떠케 할까 하는말이 나왓다。

七

쇠다리주사댁 김나무에 알감만 주렁주렁 남고、여긔저긔 썩어가는 집웅우에 밥들이 히뜩히뜩 들어나고、고초가 밤앗케 널려서、가을은 깁엇다。

그러나 농부들의 살림사리는 서리마진 나무닙가티 점점 오그러저들고、저녁이면 야학당에 모히는 친구가 늘엇다。

『어서들 먹어!』

그날저녁 야학당에서는 쇠다리주사비 감도적질을 해왓다。

『앗다 개똥이 저놈 나무재주는 참잘해!그저 이가지저가지를 타다니는것이 꼭 귀신이거던。』

철한이란놈도 감따러갓든 이야기를 해가면서 맛나게 먹는다。

『먹고십허 먹엇다、체하지는 말어라!』

한놈이 밤서부터 두가슴을 두다린다。

그러나 다른놈들은 맛나게 깨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ー랑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內務省衛生試驗所無鉛證明

百貨店·藥局·小間物化粧品店에잇슴

—당신은—

劇場에서 街頭에서 或은 떼파ー트에서 흘랑 반할뜻한 魅을가진 佛蘭西人形과 가튼、어엽분 化粧을 하고잇는분을 늘 보셧지요。

엇저면 글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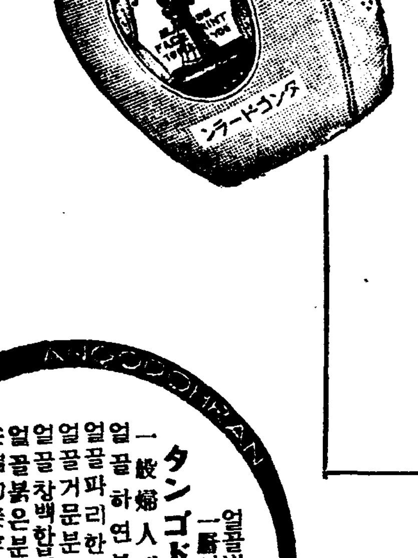
엇더케하면? 그러케도 어엽분 化粧이 될가?

× × ×

크림과 白粉 가루白粉의 그런平凡하고 魅力업시 時間걸이는 不經濟的인 從來化粧에 不滿을가진 女性은 꼭 一次탕고도ー랑化粧을 써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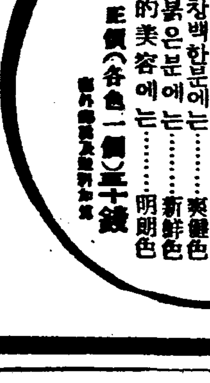
탕고도ー랑은 化粧水와 크림과 白粉의 三大作用을 단 한가지로 同時에나게하는 大好評의 綜合化粧料로서 그 個性美를 살니고 깁흔맛잇는 美粧効果는 꼭 당신을 훌융한魅力이잇는 저佛蘭西人形과가치 어엽부게 하여준다。

탕고도ー랑의 使用이야말노近代化粧의 秘訣이다。



●가루크白粉의缺點을完全하업새버림●

姉妹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各色一個)六〇



얼골빗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된
タンゴドーラン七色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골하연분에는……白色
얼골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거문분에는……早曉色
얼골창백한분에는……爽健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尖端的美容에는……明朗色
定價(各色一個)三十錢

日本總發賣元 株式會社 鳳鳥メール本舖 宇野達之助商會 東京·大阪

鄕歌解讀에就하야

特히願往生歌를中心으로

⑪ 梁柱東

(5) 誓音深史隸陰衣希仰支
誓音기프산尊애울워

이一行은 氏의 所謂에 大略貫成하나、다만『誓音』을 氏가『셜음』이라 읽은것은 그릇이다。『셜음』은『誓言』의義요、어린[..]에 잇는境遇에 [..]佛의 形容詞로서는 [..]에 涉하는터인즉、厭[..]뜻이 쓰지 안헛슬것이다。

날깁고尊하야 信誓기프실써 (月印第一、第八章)

에서와가티、『誓深』은『셸깁흔』가 가니오『信誓기픈』의 義일것은 疑心할 餘地가 업다。또한『誓』의 古訓이 口音을 終聲으로하는 말인것까지는 알수잇스나、나는 아족도 그말을 文獻에서 찻지못하엿다。大方의 敎示를 기다리기로하고、于先『誓音』이라 하여둔다。그當時에 발서『誓』를 誓語하여 日常語에 使用하엿스면、或은『誓音』이 意外에 的中할는지도 모른다。

(6) 兩手集刀花乎白良
두손모도호숣아

大體에잇어서 氏의解讀과 近似하나、重要한一點에서 나는 氏와 意見을 달리한다。即 氏는『花乎』二字를『와』라 읽음에反하야、나는『호』로 읽는것이다。氏도 本句의 意味를『兩手를 合하시와』라 譯하야、『白良』(숣아)를 告白하는 意味의 動詞로 하지안코 謙讓의 助動詞로 解하엿다。그러타면『숣아』우에 動詞는

慕呂白乎隱(그리숣온)
禱尸白賓(빌숣서)
乞白(비숣)
止以友白(머므르숣、——氏는 諸佛往面歌에잇는 이句를『머믈게숣』이라 읽고、『友』字를『文』의 誤라고 誤斷하엿다。)

等에 잇어서와같이 밥듯이 動詞의 基本形일것이오、連用形은 許할수없다。氏가『모도와숣아』라 읽은것은 動詞連用形에 助動詞『숣』을加한者、곧『호야숣』의形이나、이러한 文法은 아족 例가 없다。

나는『集刀花乎』四字를『모도호』라읽고『合한다』는뜻의 動詞의 基本形으로 解하고저한다。李朝初期의 文獻에서『몯인다』(集、合의自動)는『몯』이오、『모도다』(他動)는『모호』니、例컨댄

千里人氏이 몯더니 (龍歌第九章)
般卒을 뫼화。(뫼호아의略)
會賓客 소놀 뫼화 (杜諺卷一・八葉)
누니 (同上卷五・四十八葉)

等에 비취어서『모도호』에 無理는 업다고 생각한다。그러면 무슨까닭으로『乎』字를『호』를 表하지안코『花乎』二字로 한것인가。대개『乎』는 通例詞에依하야『오』를 表하므로『花』字를 冠하야『호』로 읽게한것이니、『花乎』의 反切은『곳수호』이다。

誠法은 大略 以上과 갓거니와、意味는 어떠한가。氏의 解釋에 依하면、嚴莊이 두손을 合하야 佛前에 告할것이 되지마는、前述한바와가티 本歌는 嚴莊과는 全혀 無關係한것이니、이는 鄕德의 뜻가 다만 自己事情을말하고 잇슴에不過한다。

(7) 願往生願往生
願往生、願往生

그대로 音讀한다。한가지말하든김에 부칠것은、鄕歌의 漢字音讀에 잇서서 當然히 羅代의 音을 追跡하여야 되겟다는것이다。그러나 그方面의研究는 아즉 나의 企圖할것이못된다。

本句는 六音이지마는 願(원)이 去聲長音이므로 八音節과 略同價이다。或은 下句에、二音節의 過律이잇스니 慕人(그리)를 本句에 올려붓쳐도 無關하겟다。氏는 下文과의 連絡을 爲하야 本句밑에『이라고』三字를 括弧付로 添加하엿으나 意味때問이오 釋文은 아닐것이다。

(8) 慕人有如白遣賜立
그릴사룸잇다 숣고샤셔

前句와같이 意味하는바가 小倉氏의 解釋과다르다。氏의 解釋에 依하건댄 그릴사람이 누구인지 不明하나、이것은 母親嚴女가 自身을 가르친것이다。即 以上까지로서『답아、西方까지가서서無量壽佛前에 말슴올 讚하여주소서。여그에한女人이 잇어서 두손을 뭉고 願往生 願往生 그릴사람이 잇다고 살와주소서。』하는 뜻이다。

(9) 阿耶此身遺也置古
아으、이몸기터두고

當時의 鄕歌에는 終章、即第九句처음에는 感嘆辭를 부치는것이 例가 되여잇다。處如歌에서는 그個所에 敎曰・隔句・落句・後句・後言・城上人(義未詳)・打心・病吟・阿耶라 적혀잇고、遺事所載諸歌에는 後句・阿耶・阿也・阿邪也라적혀잇다。이들中에 阿耶・阿也・阿邪也가 原意語인데、小倉博士는 이것을『아야』라 直讀하엿으나、『아야』는 文獻에 用例가 업고또한그말은 肉體의 苦痛에밧게 使用되지 안호므로 歌謠의 感嘆語로 妥當치못하다。蒙山和尙法語略錄에『에』라는 感嘆語가 보이나 그것에 조차도 無妨하겟으나、나는 亦是『아으』、『아으』는가올호리라고 생각한다。

아으 動動다리 (樂學軌範『動動』)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同上)
아으 둘하 내해어니와 (同上『處容』)
아으 니미 하마 나를 니자니잇가(同上三眞勺)

等、무릇 古歌謠에는 모다『아으』를使用하엿고、例의 井邑詞의前半

둘하 노피곰 도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近世謠傳하여서 다음과가티 漢字로 表記한것이 잇다。

月阿、漁磯魚埃釣哩、阿弄多時阿、高高的上些、遠遠的照着弄日尼 (著者不名、投節雅歌首)

(備考=一月六日付가 一〇이되는까닭으로 今日分은 一一이됨)

學藝

現代文學의課題인 人間探求와苦惱의精神

……創作에잇서個性과普遍性等……

⑧ 白鐵

여기서 그의說敎에對하야 우리들은 勿論 一切을 無意味한

▽…空言 으로 돌녀버릴수는업다事實생각하면 人間이란『最後의것까지를 빼앗기운다!』는막다른 골목에 當着하지안호면 그의虛飾과 因襲을 버서버리지못하며 또한人間으로서의 그眞하고 深刻한境地를 把握하지못하는것이 心理的眞實의 하나이다! 最後의길에서 비로소 血路를 開拓하는心情! 그것을 세스호프는 直感的으로 把握하고 잇다고보여진다

그러하나 人間의心理的眞實에 限하야는 세스톱호에對하야 우리들은 一部의共感을 拒否할수업거니와 그럼에不拘하고 그共感된點은 너무些少한部面이오 大部分에서 우리들은 그哀傷의天才에 同意를가질수업다 우리들이 不安의現實과 苦惱의精神을 말하며 그것이 最後의것까지를 剝奪當한것과 類比할수잇는 切迫한 現實生活에서 오는精神인것도 是認하는바이나 그것은『세스톱호』가 意味하는바와 가튼『絶對不可能한 牆壁……벌서 어느곳을보나 나갈길이업고

▽…永久 히 萬事休矣!를自覺하는곳』이라든가或은우리들이 抗爭의온갓企圖를 放棄하는곳 또한 放棄하지안흘수업는곳』等에서 一切의 理性을 否認하고 愚昧한 病人으로서 呻吟하면서 探求하는『悲劇의精神』이안이고 언제나 理性과叡智를가지고 그暗黑의生活과苦鬪하며 同時에 一層價値잇는生活에 對하야 豫見하는곳에 眞實한苦惱의 精神이잇는것이다

여기서 苦惱의精神은 人間의 精神生活에잇서서 本來 叡智的이라는것을 말하기위하야 過去의 數多의 詩와詩劇에 詠傳되여온 人間의巨神—天上의 神火를地上의 人間에게傳授한 罪로『코오카서스』山頂에 鐵鎖로 억매이며 큰독수리에게 肝을 뜻기엇다는『풀로미슈우스』의 苦惱를 생각할때에 그神話는 우리들에게興味잇는 하나의『神話』를 暗示하고잇다! 鐵鎖에억매인人間과 그 肝을 파먹는독수리! 그것부터가 現代에잇서 巨大한象徵이다。그리고 神火를 人間에게 傳授하고그것을 地上에 保存하기위하야 長久한世代의 苦惱를 甘受한그人間의

▽…傳說 에는直接으로 現代에잇서우리들의文化生活에 대한象徵과暗示가 表現되여잇다 왜그러냐하면 傳授한그神火란 人間에게文化의 精神을傳한 聖火라고 解釋할수잇스며 그聖火의繼承에는 本來부터 苦惱의精神이 要求되고 잇다는것을 생각하는것도不自然한것은아닌 까닭이다!

그러타면 現代에잇서도 그文化의聖火를 繼承하려는 우리들文化人들이 그苦惱의 試練을通하지안코 다마明朗한 氣分으로그 達現을 期하려고함은 本來부터 僭越한期待가아닐가? 努力에서 努力으로 苦惱에서 苦惱의길을 거려가는곳에 文化의 秘殿에到達하는 聖路가지안흘가? 왜 그러냐하면 人間은 日常的生活의經驗的表面에 限할때에는그 深刻한 境地에 投入하지못하는 까닭이다! 그런 意味에서 今日에 文化人들이 苦惱의 辛苦가 强要되고잇는 現實은 一部的으로는 도리혀 새로운 文藝時代를 招來하는 秘妙한契機가 되지안흘가를 理解할때까지가잇다! 그리고 그런意味에서 또한苦惱가 一層우리들을 놉혀간다…』(文化擁護參照)는말에 나는 커다란 信賴를가지는바이다

하나 이人間의巨神의 苦惱에對한 解釋에잇서 더욱히 興味잇는것은『풀로미슈우스』는 苦惱의人間의 한典型的象徵인 同時에 그의本來의 天賦에는 反逆의精神과 叡智가 稟賦되여잇섯다는것이다 그는 悲慘한 苦惱가운데서 언제나 反逆의精神을 不捨하며(人間의精神이여 너는언제나 奴隸의것은아니다!라고後代의 詩人은그를讚誦하다!)그가운데서 一定한

▽…未來 에서는 벗서날 그苦惱것을 豫見하고잇섯다이때에잇서『풀로미슈우스』가 豫見하얏다는것과 가티 實際로『허메룰디이즈』가 와서 그를 解放하얏다든 가의插話的事實은 우리들에게 그리重要한 問題는안이다 重要한것은 그가 悲慘한 그苦痛가운데서 다만 絶望과自棄에 떠러지지안코 恒常 理性과叡智를가지고 그苦惱生活과 苦忍苦鬪해왓다는事實이다 여기에 苦惱의精神에대한 典型的表現이잇다고나는 생각한다

今日의 切迫한不安의現實가운데서 우리들文化人이 그聖火를 니어가기위하야는 單純히『세스톱호』的意味의 哀傷의哲學精神과 其他의 現實逃避的精神이안이고 以上의意味로서의 苦惱의 精神에依하야만 可能하다!고나는理解하고잇다! 最後의것까지를 剝奪當하는現實에대하야 人間의無力을覺醒할것이 안이라 非常한

▽…決意 를가지고 苦惱에自處하그는勇氣를 가지여야할것이다! 여기서『人間은 絶望-能動的으로 自殺하느냐? 受動的으로 狂氣에 떠러지느냐-든가 그러치안호면 信仰으로 飛躍하느냐?의『이것이냐 저것이냐?』의決定의압헤 서게된다!』(이것이나 저것이나』고『케아케골』이말한代身에나는 가튼境遇에대하야『人間은受動的으로 自棄自殺하느냐 狂氣에떠러지느냐! 그러치안호면 能動的으로 그것에自處하는 苦惱를不辭하느냐?의『이것이냐 저것이냐』의 決定의압헤 서게된다!』고 말하고 십다! 今日의 이現實가운데서生活하는 우리들 文化人에게 이苦惱의 精神의길은 今日의 새롭은 人間型을探求하는 唯一의血路라고 나는깁히 확信하고잇다(人間探求問題序論終)

附記 人間探求의本論、創作에잇서 個性과 普遍性問題等은 各各別題로 다른機會에 發表하려고한다!

◇…原始動物解體 —이怪物은有史以前動物의 剝製標本인데巴里에서 열닌展覽會에『뉴-욕』에서出品한것이다。展覽會가 맛친뒤다시『뉴-욕』으로 發送하려고 解體하는光景이다。

文藝雜感(五)

『朝鮮말文學』의 世界的樹立

宋影

六、朝鮮文學의世界的向上

現代에 새로운 朝鮮의文學은 그 發生되이 年淺함에도 不拘하고 縱으로나 橫으로나 많은 發展과 飛躍을 보혀주고잇습니다

一部 外國文學에만 心醉한 文學者나 讀者層은 덥허노코 朝鮮의文學을 蔑視的으로 評價를 함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그 反對로 評價를 하고잇습니다

이 蔑視的으로 自家의文學을 低下식히는 一部의사람들은 大槪는 朝鮮의作品은한個도읽어보지도못하고 評說의趨勢도 斟酌도못하고 다만 朝鮮의作品이니까 케케묵엇다하는 一種 輕佻한先入觀念을가지고서 浮動들을 함니다

勿論 모든것과가티 一般的文化가 뒤떠러진 朝鮮인지라 先進文化社會에다 比하면 凡庸한것은事實입니다

그러나 出發은 到着의一端입니다 한個의偉大한創造는『未完成』에서『完成』으로의努力의結果입니다

이러한 一部人은 自家의文學을 輕視할뿐아니라 따라서 外國의文學을 盲目的으로 崇拜도 합니다

이것은 一種 事大主義의變調인 拜外主義로볼수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自己들이 盲從하는外國文學을 朝鮮에 紹介하려고도애를씀니다

그러나 그 紹介하려는意圖는 이것을 紹介하야 자라나는朝鮮文學의거름이 되게 보겟다거나 따라서 이러케 자라난朝鮮의文學을 世界的 데뷔-위에 昂揚식혀 보겟다는데에는 別로히 업습니다

全無다는 勿論아니요、드물다는 말입니다、

×

朝鮮人이가진 이가튼 事大主義、拜外主義들은 一般的인世界의文化를消化식힐줄을 몰으고 또는 알고도안하고 그냥 통으로 집어생켜버립니다、過去、朝鮮의古代文學의內容이 古代中國의 消極的、保守的인 程朱學派의『이데오로기』를 담고잇는것과 마찬가지로 現代 朝鮮이가진 一大部分의文學의內容은 終始에 갓가운 因襲的인 一種少許稀의 觀念입니다。

이 그룹의正體는 因襲속에滿足하려하는 一聯의 保守主義者입니다。

이그룹以外에는 이그룹보다도 더 狹隘한 因襲속에서 곳노래를 불느는 사람들이 잇습니다 이들은 좁은 觀點와 묵은觀念을 土臺로해가지고 허무러저가는 鄕土의殘墟를 感懷無量하게 읊고잇습니다 稱頌的이 아니요 進步的이 안입니다。

한층 나아가 모든 進步的인 文學에 對하야 敵意나 猜忌와 嘲笑를 가지고잇습니다。

마티 나는 헝이업서서 죽기만 기다리는데 너이는 건방지게 일어서서 단이는냐?고 악을쓰는 無力한病者의 自暴的猜疑입니다。

×

朝鮮이가진 現實은 朝鮮만이 가진特殊性을 가지고잇습니다。

그러나 世界의 現實이가진똑가튼 普遍性과도 가지고잇습니다

朝鮮의進步된 젊은作家가 創造한 모든作品속에 나오는 朝鮮의 勞働者와 農民은 말만은 朝鮮말을하지만 그들이 거러가는길은 지내가는 生活은 米國이나 英國이나의 勞働者와農民과 갓습니다

한곳에 人民은 조밥을 먹고 한곳에人民은 감자를먹고 한곳의人民은 牛車를갈고 한곳에人民은 自動車를運轉하고 하는것들은 다-各各 特殊하나 똑가티因襲속에서 脫出하려하면서 여름의太陽을 잡아다니려고 애를쓰는것만은 一般입니다

×

우리는 朝鮮말文學을 世界文學의 떼뷔위에向上식히기爲하야 世界의普遍性에、어그러지지안는 굿세인良心으로써、오래인因襲속에서 勇敢히 解脫함으로써 朝鮮의風色과 人情이넘치는 特殊한 文學을 創造하여야함니다 朝鮮의文學은世界의文學입니다 朝鮮의文學者는 世界의文學者로써의實力을 가저야함니다 完

漢詩募集

題 春雪
押 風
限 一月末日
薄謝進呈

우리가要求하는 『理論과實踐』

❷ 朴鍾鴻

勿論 理論이 그固有의本領을 忘却하야 이저버리고 오로지 一時的인 世俗의人氣에만 迎合하려고애를쓴다면 그야말로 理論이 卑屈하게도 墮落하는날일것이며 우리들 그眞正한 意味에 잇서서의 指導的價値도 일허버리는때일것이올시다。우리朝鮮과가티 무엇로다도 아직啓蒙運動이 가장緊切한곳에잇서서는 理論이 어데까지라도 理解하기쉬운 表現의方式을 適하야 傳達되여야할必要는 늣긴다할수잇스되 그러타고 理論自體를 俗流化하야 或은本來의意圖까지 구퍼가며 世上에 阿諂하는은 도한삼가지안홀수업는 事態인줄압니다。一時的의 迎合이나 阿諂이 決코 指導의本意가 아님은 다시거듭 말슴들입니다

▽必要 조차 업겟지오마는 우리는 까딱하면 긴要은 自覺과 科學도어시 專只 겸든 流行가온대에서 오날은 이思想을 紹介하며 來日은 저思想을 論評하야 스사로 指導의任務라도 다하고잇는드시 生覺함도또한 警戒하여야될줄 압니다。

이와가티 理論이 그의象牙塔으로부터 解放되여 바야흐로社會에 進出함에미처서는 여러가지 意義도 잇는바 아니로되 악가이미 잇는곧인바와가티 그러라고하여서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避할수업고 無視할수업는人間으로서의 最高의 欲求따라서그로말미아마 생겨나는 人間의 여러가지現實的行動乃至實踐으로부터멀리遊離해떠러저서 空虛한論理的 嚴密性만을 爲主하거나 瞑想的 思索에만 陶醉하야

▽觀念 의 空中樓閣을 머리속에 지은것으로서 마치理論의 尊嚴性이라도 發揮하는所以가티 자랑함은 또한 現實을 몰으는 閑暇하신 學者生員님들의 일일것이올시다。제아무리 莊嚴한理論의 體系요 幽邃한神秘의 解說이라고 할지라도何等우리의 現實的生活을 指導하며 左右하는 能力과 誠意를가지지못한것이라면 이切迫한 現實的情勢에處하야 兩知所措에 매이고 잇는우리에게 무슨關與되는바잇슬것이겟습니까。그러한 理論에對하야 世人이 나무람도 또한 잘못이라고 할수업슬줄암니다。

勿論書齋에나 引退蟄居하야抽象的인 觀念形態에다가 이리저리加工해보는것으로 消日거리나 삼는學者가 지어낸理論도 이世上에對하야 全然價値가 업다고 할것은 아닐는지도 모르겟습니다。果然世上에는 古物이나 모호기조와하는 骨董蒐集家도 잇지안어요? 다가티 各樣各色의 여러文化에 貢獻하는바 업지도 안켓지오。그러나 우리가要求、渴望하야 마지안는바 指導原理를이러한 理論에서 어더보고저 한다면 그야말로緣木求魚以上의 딱한擧措일것이올시다。아니우리들의實踐에잇서서 그힘을鈍擦케 하는有害無益한理論이나 아니면 多幸일것이올시다。

이와가티 實踐에對하야 잇스나업는것만 오히려갓지못한理論이 不無하기때문에

▽理論 을 처음머리부터 排擊하는 蛇蝎視하야 우리가 往往보게되는것도 勿論 極端的인 反動政策이라고 아니할수업스나 또한 一理가 업는바도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너무나 理智的이오 合理的인個人主義的 市民社會의 理論이 無氣力하게도 늙거빠저 現實的實踐에對한 絶對的無能力을 暴露하며 한갓固息한 뎃날의形骸나保存하려고 오갓手段과 苦肉의計策을꾀하며 허덕이고잇슬이때에 將次新鮮한生命이넘치는 새로운歷史를 다시금展開하야 나아갈사람은 果然 그누구이겟습니까。여러社會的 關聯속에서 自然成長的으로 새로운實踐의싹이 업든다고도볼수잇스며 따라서 저佛蘭西산되칼리즘의 樹立者『소렐』과 가티 새로운 社會的『그룹』이 가고잇는바 本能的인것、自然 成長的인것을 極端으로 尊重하게까지 되는것이올시다。그리하야 本能을 理論에 對立시키며 自然成長性을 目的意識性에 對立시키어 一定한觀念形態만을 除去할것이 아니라。온갓 理論을、即 理論自體를 排斥하여야 된다고 까지 보게되는이 옵시다。暴力으로서의 實踐을 是認하며 비록 그、것이

▽失敗 하는 恨이잇다할지라도 그것은 問題로 삼지도 안으며 도로혀 그 犧牲的 失敗가 우리를 敎育하며 巨大한 事業에 對하야 準備를하여주는것이라고 보는것이 옳시다。

그러나 單只『파토스』的인 情熱的인『미토스』神話的信念을 唯一의 憑據삼아 盲目的이라고하야도 無妨할 冒險的 實踐으로서 能事乃己라하야 滿足할수잇슬것이겟습니다。理論에 對한 關心이야말로、理論鬪爭의 缺乏이야말로 實踐의 發表에 잇서서 커다란 妨害物이 아니될수 업스리라고 생각합니다。理論을 가지지못한 實踐이 그 終局에 잇서서 不完全한 한낫의 施行錯誤에 지나지못할것은 明若觀火、저불빗을 볼가치 自明한일이겟거든 하물며 그實踐이 一時的인 他人의 模倣으로 한낫의 流行的 現象을 흉내낸데 不過하다면 그弊害야말로 이루列擧할 餘地가 업슬것이라고 생각합니다。理論은 決코 全體的으로 排斥하여야될 無用之物이 아니오 도로혀 가장 重要視하여야 될것이며 우리들이 排擊하여야 될것은 오직 現實的根底를 忘却하야 이저버린『理論을 爲한 理論』뿐인것이 옳시다。

讀者社交室

百五十字로利用萬般

우리네들은 拘碍와 忌憚으로因하야 알리어조흘말을 알리지못하고 또 들어조흘말을 못듣는수가 만흘뿐더러 複雜한 人烟과 奔忙한 生活속에서 設使 알리고 십고 듯고 시퍼도 그역시 機會를 엇지 못하는수가 적지안타。그래서 서로 서로의 必要가 交換되지못하고 서로서로의 親近이 도모되지못하는 것은 勿論이어니와 심지어는 한번 釋然히웃고 풀어버릴만한 일에도 白眼으로 相視하야 한 仇敵의恨을 품는수도 업지 안타。社會生活을 해가는 우리로서 이어지 缺少한 現象이라고 보아 치울것이랴? 今番本社에서 增面의巨大한 奉仕를 斷行하는同時 讀者諸位의 社交室欄을 設置하야 彼此間 알리고시픈말과 듯고시픈말을 交換하야 드리는것도 決코 그意義가 야지안타고 自信하는바이다。

本欄利用規定

▼投稿事項은 求職、求人、學事、圖書物品交換、紹介、問議等事項을一行十五字 十行以內로 楷書에 簡單히精書함을要함
一、左記의 諸項은 一切揭載를拒否함
1、한 個人이나 團體를 勿論하고 毁謗、中傷을 內容으로한것
2、廣告의 性質을 띄온것
3、風紀問題에抵觸될념려가잇는것
▼紙上匿名은 조흐나 本社까지는 住所姓名을明白히 적어 보내기바람
▼반듯이 朝鮮日報社學藝部社交室係라고 明記해주시기를바람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當校로直接問議하시오)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募集人員 一百二十名
▲申請期限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日字 自四月一日至四月三日
▲試驗場所 京城府內同校、東京市本鄕區東京高等齒科醫學校、福岡市西新町福岡縣中學修猷館
▲試驗科目 外國語(英語又는獨逸語) 國語、化學(無機) 圖畫(寫生)

全州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限 二月末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六日至三月十七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朝鮮語、理科、國史、算術、國語(讀方、綴方)

全州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限 自二月一日至二月十九日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三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讀方、綴方)算術、國史、地理、朝鮮語、理科

海州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限 自二月一日至二月十九日
▲試驗日字 自三月八日至三月九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地理、國史、理科

裡里農林學校
▲募集人員 百名
▲申請期限 二月二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四日至三月六日
▲試驗場所 同校京城壽松公立普通學校、大邱公立普通學校、忠北慶南、黃海、平南、咸南의各道廳
▲試驗科目 國語、算術

本品의甘味는葡萄糖과果糖의甘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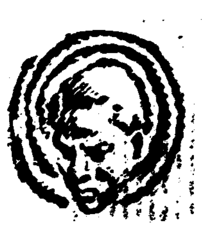
本品은 砂糖(蔗糖)이絶對로들어잇지안타。本品의甘味를내는것은專혀그成分中의葡萄糖이다。그럼으로 本品의優秀性은 다른砂糖(蔗糖)에依하야 맛을내는葡萄酒에比할바가 아니다 말할것도업시葡萄糖이나果糖이나極히優秀한 榮養素인까닭이다。

美味 滋養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 — 도 와 연

000136



黑風 【230】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참사랑 (十四)

「감사합니다 그런대 우리가 각별한뒤에 어데가서 어떠케 지나섯서요?」

하고 왕한은 순전히 딴문제를 끄낸다

「예!」

하고 옷깃을 염의면서 봉숙이가 대답을 하랴할 지음에 창순이가 이러나랴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런데 헤가 저무러가는대 저녁밥을 지어야 되겟고 봉숙씨도 시장할터이니까 저녁밥을 지어먹고 밤에이야기 하지오 지나간 이야기를 하자면 무론장황할것이고 나도드려야 할터이니까」

하고 왕한과 봉숙을 번가라 처다본다

「그럼 그럴까 그러는것이 조컷군」

하는 왕한은 위선 자기가봉숙의 뭇는말을 대답하기 어려운 곤경에서 벗어나는것이 무방하얏다

「그럼 나는 나가서 밥을 지울테니 봉숙씨는 안저서이야기나 하시오 그러나 우리가 작별한뒤에 경과한일 이라든지 기타의 자미잇는 이야기는 하지말고 두엇다가 내가 드러오뒤에 하서요 또 두번하랴면 새삼스럽고」

하는창순은 새로 빠라두엇든 압치마를 내어치면서 문을열고 나간다

「나도 나서밥짓는 구경을하여야지 창순씨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느럿나도 보고」

하는 봉숙은 창순의뒤를 따라 이러선다

「암만해도 할수업서 가재는게편이라고 녀자는 녀자편이니까 아마 내가 밥을 지으러 나간다면 봉숙씨가 따라나오지안허럿다」

하는 왕한은 명랑한 우숨을 옷는다

「그러치만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불원천리하고 차저온것은 가튼 녀자인 창순씨를차저온것이 아니라 남자인 선생님을 차저온것입니다 장지밧짓는데 가치 나가는것을그대지 시기하시게 무엇이여요 창순씨의 헬끗도 건드 리지아니 할터이니 염녀마서요」

문지방을 걸치서 나오랴든봉숙은 발을 멈추고 왕한을 향하야 말놀한뒤에 손가락으로압혀선 창순의 연구리를 쿡찌르며나온다

「에그 고소하야 저런말을 좀드려야지 못하면 녀자니 남자니가재가 게편을 드는것은 다무에야 그게다 녀자라고업슨에기는말솜이지 우리도 래생에는남자가 되야서 혁명운동의 선구자가 되여야지」

창순은 봉숙에게 눈을 끔적이면서 방울향하야 벼을둘코서 왕한을 드려다보는듯이 말하얏다

「고마두고서 낙거온 고기로 반찬이나 잘 만드러서 손님대접이나 하시오」

하는 왕한은 딸을 비고 두려움는 소리가 난다

창순과 봉숙은 서로보고 소리업시 우스면서 부억으로 나갓다

「그런데 참 서선생님이 웬일이오?」

밥솟에 불을 때이는 봉숙은 반찬을 작만하는 창순에게 말을 무럿다

「무엇이 웬일이야!」

「사람이 두세번 와도 나오지 아니하니 말이야」

「그러기에 말이야 도무지 웬일이지 모르겟서요……」

하는 창순은 반찬을 만들기에 방부다는듯이 간장병을 가지고 오더니

「이거 손님이 불을 떼어서되엿나」

하고 옷는다

「그런말은 고마두고 나의말이나 대답해요 서생님이 웬일이서요 아마 창순이가 못나가시게 부뜨는게지」

「그런지도 모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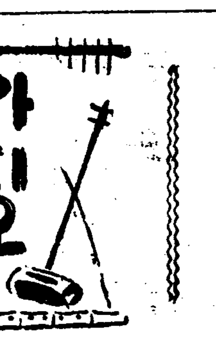
봉숙의 그런말찜은 변명할처지가 아니라는듯이 한자락노코서 대답하얏다

「그런데 서선생님이 아조 일에대한 생각이 끈어 지섯슬까?」

「아니 그런것은 아니지 그이가 천품이 혁명적으로 라고난인데 일에대한 생각이 업서지다니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는 창순은 봉숙을 흘깃보고 옷는다

라디오



二十日 (月曜)

◇午後六時 始初이야기 옷과집 金孜植
◇同六時二五分經濟解說 高永煥
◇同七時三〇分 講演 왕들와近代文明 沈斗燮
◇午後八時 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 赤壁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漁夫詞 安鶴仙 金花香 大岑 金永根
◇同九時 映畵이야기 임자업는나룻배 李晟興 李命萬

第一放送
◇午後六時(東)少年音樂講座
◇同七時三〇分(東)新年歌御會始
◇同八時三五分(東)箏曲
◇同八時五五分(東)映畵劇

二十一日(火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三日新婚 白岳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學齡兒童을둔家庭에게(二) 鄭義澤
◇同六時 아코-듸온獨奏 一、알파行進曲…李東坡作曲 二、瀨戶의風景…福島編曲 三、安樂한家庭…李東坡編曲 四、즐거운農夫…金生峰編曲 五、사랑과名譽를爲하야…알버-티作曲 伴奏 아르파하-모니카밴드 指揮 金生峰 金文星
◇同六時二五分 經典辭說 父母恩重經 (一) 佛專講師 金敬注
◇同七時三〇分 講演 베콘의哲學 李載薰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遊仙歌 三、船遊歌 四、방아타령 張埰鳳 李彩瓊
◇同八時二〇分 (東)室內樂 絃樂五重奏 絃樂五重奏曲 第二〇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테 第三樂章 메누엣트 第四樂章 알레그로 第一바이올린 末吉雄二 第二바이올린 桂平太 第一비올라 藤田秋 第二비올라 大塚淳 첼로 中島方
◇同八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春香母가모고비는데 趙素玉 鼓手 池龍九
◇同九時一五分 誦書 千手經 朴雲陽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어머니의時間
◇午後〇時〇五分 (大)歌謠曲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釜)童話
◇同六時二五分 (東)青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釜)長唄
◇同八時二〇分 (東)室內樂
◇同八時五〇分 (東)小唄
◇同九時 (東)立體漫談

曆

一月二十一日(火) 十二月(舊己丑)(小)廿七日 壬寅·金·室·除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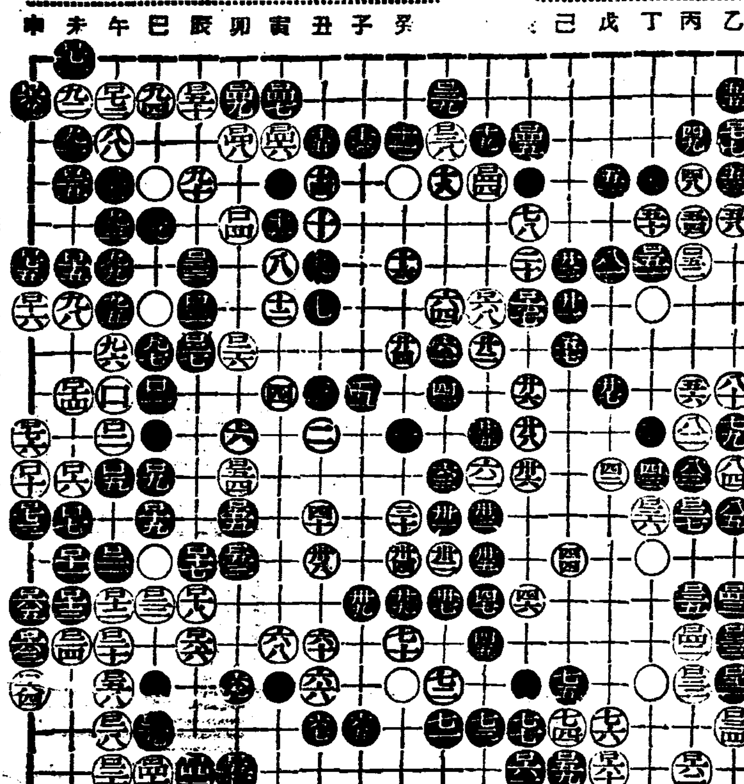
英文壇의巨匠 『키프링』氏逝去

벌서부터 宿患으로 治療中에 잇든 英文壇及詩壇의 巨擘연 『루듸야-드·키프링』氏는 지난 十七日 갑작이 容態가 惡化해서當日午後零時十分에 맛침내 逝去하엿다。享年七十二。氏는 一八六五年에 印度政府에 奉仕하든 美術學者 『존·키프링』의 아들로태여나서 教育은 英吉利本國에서 바덧스나 十八歲때에 印度에 도라와 雜誌編輯도하다가 一八八六年에 處女作인『듸이 바르멘탈·리-피스』를 내고 一八八七年에『솔듸야-스·드리-』를 내여英文壇에 不拔의地位를 차즌다음에는 달어서 幾多의短篇集과 詩集을내엿고 一九〇七年에 『노-벨』賞까지 바덧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蔡極文
黑 丁奎春

●一六一 庚의十八
○一六二 丙의十八
●一六三 申의十五
○一六四 申의十六
●一六五 申의十四
○一六六 辰의十五
●一六七 庚의七
○一六八 辛의十
●一六九 申의二
○一七〇 甲의五
●一七一 未의一
○一七二 午의二
●一七三 申의十二
○一七四 甲의四
●一七五 申의六
○一七六 申의十
●一七七 乙의三
○一七八 卯의十九
●一七九 寅의十九
○一八〇 巳의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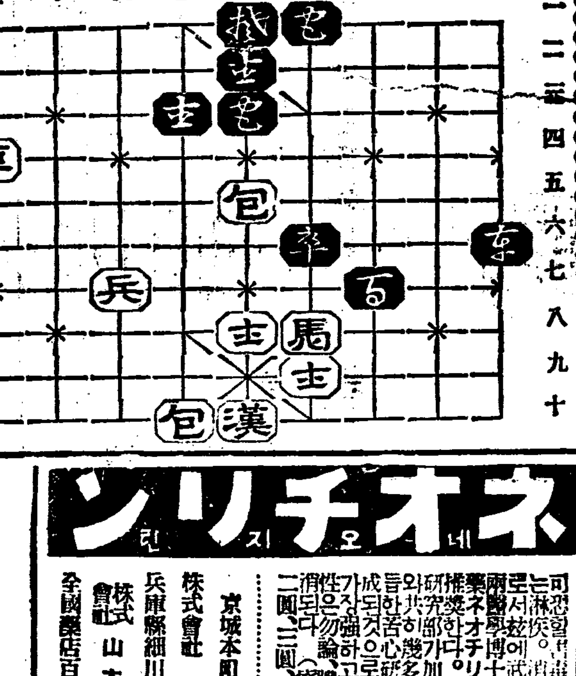
◆對局者談 白丙의十八은 要備가 相當하다 만일 黑이 乙의十八로 越點을 要하면 白의 損이아닌가 黑申의二는 三端이라도 五端效果가 잇는것이다 白甲의四 卯의十九는 受應이 最要하고 黑申의六 未의一도 亦在當先하니 末端收拾이 最貴當先이라 無衛當先이면 勝利도 必在當先矣리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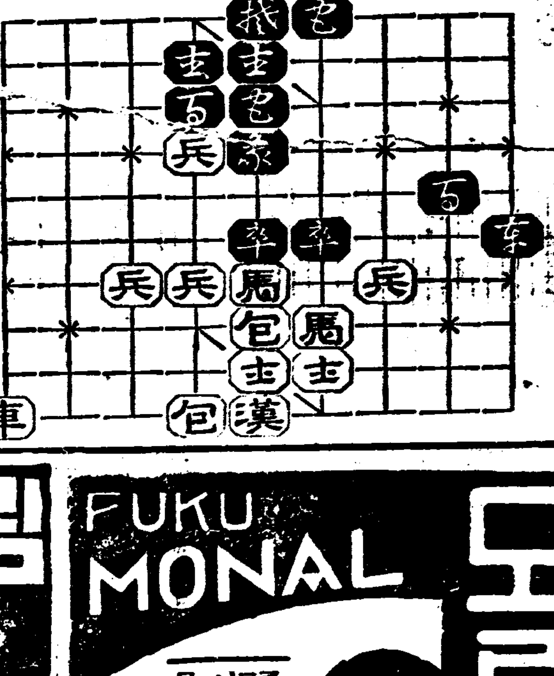
李在鳳 漢 丁奎東

◀七十手圖▶

戊(包)—庚七打兵
己七兵—庚七打象
戊六(卒)—戊七打馬
己四兵—己五打馬
己三(包)—己五打兵
戊八包—戊五
乙五(車)—丙七打兵
壬十車—壬一
戊七(卒)—戊六
戊五士—戊八打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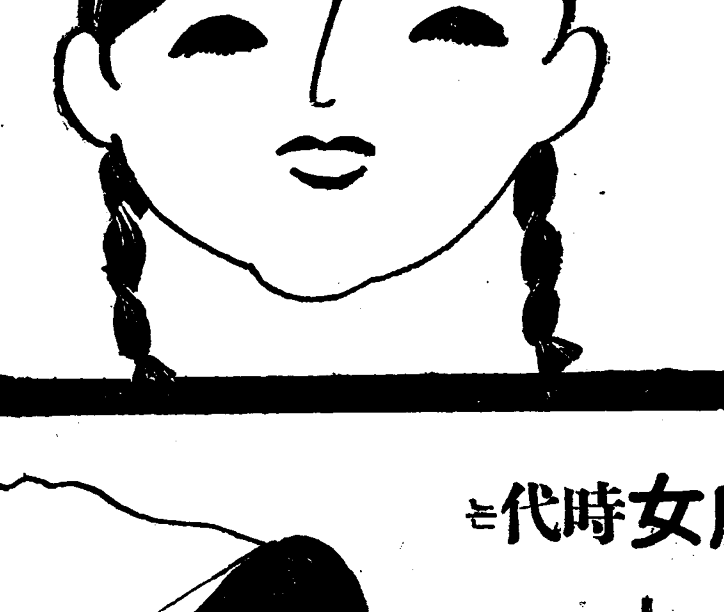
◀六十手圖▶



一家を擧げて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애들때부터
처위에살안트고 皮膚病에안걸니도록레-도구레-무를아츰마다조금式살결에발너주십시오!

學校時代는
레-도구레-무는決코校風에違反안되고도리혀女學生의高尙한趣味로써先生들은推奬한다。



二八處女時代는
피여나는 人生의꼿
이런花容을다시레도-구레-무로빗내게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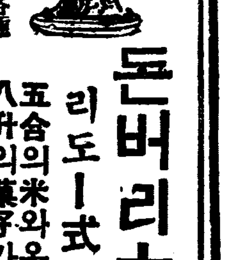
母親이되야서
빨내와부역에서살이잘터지기쉽습니다、언제든지레-도구레-무로살결을점고곱게손질합시다

レート白粉本舖
東京
平尾贊平商店

ネオチリン (네오지린) 림질
可恐할淋毒을根治하는 …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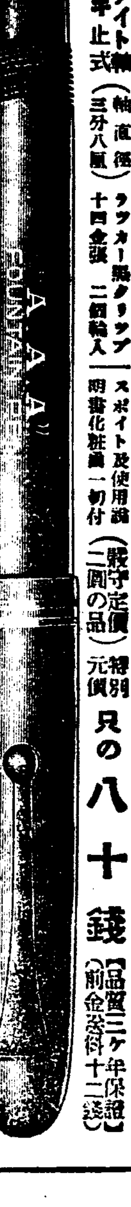
FUKU MONAL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福 모나-루 (モナール)
福모나-루의特徵
5瓦入 10瓦入 20瓦入 50瓦入
發賣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大阪 田邊五兵衛商店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釜山府幸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四)二八番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습니다



新式發明
돈버리大王
리도-式膨脹機
五合의米와옥수수가八升의菓子가된다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

實用本位の新製品
サンエイ
高級萬年筆
實物宣傳
元價サービス特賣
(實出總數十萬本限)



特別奉仕!!
十四金二號ペン 高級エボナイト軸 完全インキ止式
只の八十錢
製造元 東京市中野局私書函十八號 鈴木合名會社宣傳係

명절준비에
꼭아지노모도를 잇지마십시요
모든음식을맛잇게하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 鈴木商店朝鮮事務所

十七日ヨリ二十三日迄京城鐵道カトリック青年會主催特別大興行
十字軍
パラマウント超大作
セシル·B·デミル 監督
ロレッタ·ヤング ヘンリー·ウイルコクスン 主演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画劇場

圖書館 11.1.21 LIBRARY

津水電逆流水 重大한社會問題化
河水가全部凍結氷原化하야
沿岸村落宛如氷上船

【咸興】 큰 …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 제일호발전소에서 역류하는 오백립방메돌(五百立方米)이나되는 만흔수량이 일시에흑림강(黑林江)에 흐르게되여 하폭(河幅)이 좁은 흑림강이범람하게되여 그류역인하기천 상기천(上下岐川)량면의 십여개리 전답과 도로교량이 류실되여피해가 막대하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최근상사일간 혹한이습래하여 하폭전판이 밋까지동결하게되엿슴으로 본래의 하폭보담은 수십배나 널러진후에 하상(河床)이 몃배나 더 놉게되엿슴으로 의연빙상(氷上)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갑작이 몃배나 떠저흘르게 됨으로 류역의피해도 수배의 광범위로 확대된다고하는바 특히 동강에 하류방면인 상기천면죽리 제이구(上岐川面竹里第二區)와 오로리(五老里) 경흥리(慶興里)의 삼리는 늣겨지는물론 주가(住家)에까지 각각으로침수하게되여 해지방일대는 안계(眼界)가자라지못할만큼큰대빙원(大氷原)을일우워 그빙원가운데 에우라지인가(人家)가 뜨고잇는비절한상태를 일우고잇스며 외부와의 일체교통은 물론 심지어는 우편까지 두절된전연고립(孤立)된 참경을 정하고잇스며 룩속피난하는 가운데 이럼으로 주민들은 극도의 동요를일으키고잇스며 지난십팔일에는 리재민사십여명이 동면사무소와 주재소에 쇄도하여 그대책을 탄원하엿다는데 방금 중대한사회문제화하고잇다

할수밧게 도리가업다고한다

被害住民 元啓實 談

참이러한 괴변은 처음보앗습니다 수해라는것도 여름이라면 혹몰라도 령하이십여도가되는이엄한에 살고잇는집까지 어름에싸여 따뜻한집까지 일케된 우리들은 어데가단말이요 참긔가막혀 말이안나옵니다。 어떠튼 도청에도 진정할작정으로 진정서까지 작성하고잇습니다마는 회사당국의무책임은 원망할뿐이요 운운

會社側 金德成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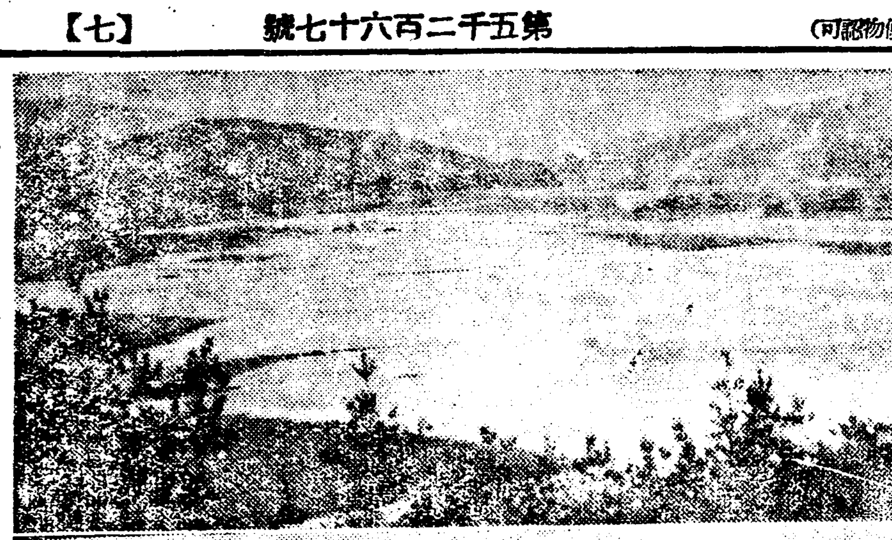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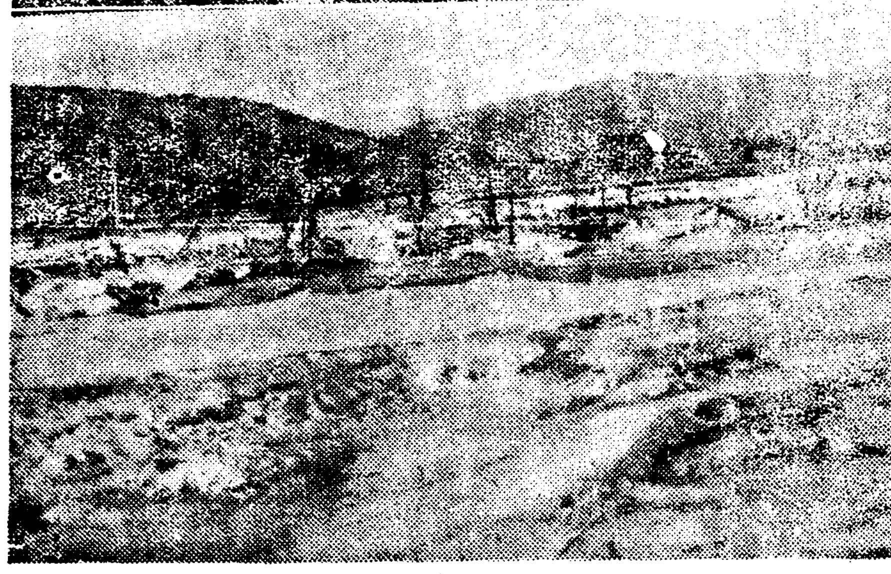
지금저로서는 그대책여하에대하여 어떠타말할수업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만한것만은 사실이오니 즉시피난하여야 될터이며 피난하는데는 보상비를 지출할터입니다 회사책임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인축의피해는 업도록 만전을긔할생각입니다

九十七戶가 氷中浸沒 住民全部避難!
寒天에彷徨하는罹災民들
實로目不忍見의慘狀

【咸興】 전기피해지중에서도 가장 혹심하고 급박한지경에 직면하고잇는 상기천면 죽리 제이구(上岐川面竹里第二區)는 본래흥남(興南)호남(湖南)량개리의 합동한것으로 주로 옹긔(瓮器)제작으로 주업을 삼고잇는 전동구십칠호 오백여주민이 살고잇는 대촌으로서 흑림강(黑林江)의 량기류(兩岐流)의 중간에개재하고 잇는데 지난해 십일월부터 전기수전회사의 역류수로 주위를 싸고흐르든 흑림강물이 범람하게되여 농경자 교통등에 막대한 침해를바더 적지안케위협되든바 지난 십칠일밤 부터 하류방면의 급격한 동결로서흘러내리든 물은 전기동리 부근으로 퍼저서 각각으로 주가로 침범하기 시작함으로 그날밤동야 잠을 일우지 못하고 소란한 가운데 지내다하며 박재욱(朴在郁)김리득(金利得) 한근유(韓根有)등 륙호는 상하직전까지 침수되여 십팔일전부피난혹은 가장즙물을 수습하야가지고 철거준비를하고잇스며 기타전부해에도 룩속피난하려고 하는형세에 이르고잇다 그러나 령하이십여도의 한천에 급작이 이전할라야 적당한곳도 업슬뿐아니라문압까지 마원을 이루고 잇슴으로 공포(恐怖)와 극한에 떨고잇는 형상은 목불인견의 대참상이며 이러한 수해는 지난소화삼년도의 관북미증유의 대수해에도 복과사오호의 침수가옥박게업든 동촌으로서는 개벽이래 처음당하는일이라하며 이만한 수량을방출(放出)하면서도 미리아무대책을 베풀지안흔 회사당국에대하여 극도의 분개를가진다고한다

咸興署員急遽出張 現場을實地調査

이러한위급한 지경에빠지고잇슴으로 동리주민사십여명이 십팔일면사무소와 주재소에쇄도하여 그대책을 간원하엿는데 동오로 주재소에서도 크게중대시하여 즉시하기천면동흥리(東興里)수전회사에전화로 통고하엿든바 동회사에서는 즉시 서무과 김덕성(金德成)씨를 급파하여 실지현장을 조사케하엿스며 십팔일에는 함흥서보안계 목촌(木村)주임도 현장에급행하여 실지조사하엿는데 회사당국에서는 방금 경결긔로서 한등의대책공사를 할수업슴으로 명년해빙긔까지 위급한주가는 일시타처로 옴기게

◇寫眞…(上) 大氷原을일운黑林江沿岸 (下) 同沿岸浸氷家屋

…옥 명렬로를 계속할모양이라고한다

稅署의總出動 密酒造를取締

【忠州】 충북 충주세무서에서는 지난 일월십칠일부터 일주일동안 구력정초를 목표로 관내인 음성, 제천, 단양, 충주등사군에 전원이 총출동하야 혐의활동을 개시하엿다한다

陰城郡下火災 四棟全燒

【陰城】 지난 십구일오후세시반경에 음성군 음성면 평곡리(陰城郡陰城面平谷里) 김병화(金炳和)씨의 연초간조실(煙草乾燥室)에서 불이이러나 때마츰 부는 강한서부동에 련접하여잇는 런가이동과 간조실이동을 전소하고 용성소방조의필사적 노력으로 다섯시반에 간신히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간조실에 저장하엿든 정조사십여석 반소까지 약 일천오백원가량이며 원인은 방금경찰당국에서 조사중이나아이들의 실화인듯하다고한다

本報大阪支局後援 蹴、庭球大會盛況

【大阪】 재일본조선기독교대판교공공려청년회(在日本朝鮮基督教大阪今宮共勵青年會)주최와 조선긔독교청년회대판련합회와본사대판지국후원으로 일월십오일에 시립시강운동장(市立市岡運動場)에서성관서 축구대회를 열기로되엿다함은 본지에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당일 동대회에는 정구여섯팀과 축구여섯팀이 출전하엿든바 축구에는 북구군(北區軍)이 우승하고 정구에는 중앙군(中央軍)이 우승하엿다는바정구우승팀에게는 본사대판지국에서 기증한 우승긔를 수여하엿다고한다

爆藥의爆發로 坑夫一名即死

【咸興】 지난십오일오전열시오십분 리원군남면창흥리(利原郡南面昌興里)리원철산(利原鐵山)항내에서 악실피의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여 동철산 발파계주임진금복(陳金福)(三七)은현장에서즉사하고항내일부가붕괴되엿다고한다

民間敎育機關 誠一義塾昇格運動

【鏡興】 함남영흥읍내에 소재를 둔 민간교육(民間敎育)의유일한 긔관인성일의숙(誠一義塾)은영흥천도교종리원에서 경영하여왓섯는데 재정기타모든관계로 근근히유지는 하여왓스나 아직훌륭한업적을 나타내지못하고 겨우 연명만을 하여오든터인데 영흥유지들은그를항상 유감으로 생각하여오던바 신춘을 마지하자 영흥의 당면한신규문제로 우긔의숙을 확장코자 지난십이일에 읍내 해동병원(海東病院)에 유지몃분이 회합하야 사년제를특년제로 승격할것 교원을당국이 인정하는 교원을채용할것등 긔타 재원조달에대한건을 토의한바 구세말후에는 유지몃분은더

土幕民二百戶에 要救急者八百餘
嚴冬으로就役할곳조차업서
邑當局의救濟만苦待

【兼二浦】 최근의 겸이포(兼二浦)지방의일긔는 령하 이십이삼도란 소화륙년이래의 처음보는 긔록을 뵈이고잇는 이혹한이사정업시 습래하고 잇는이때 겸이포지방의 토막(土幕)과 불량가옥에 거주하고잇는 세궁민은 얼마나 되는가를 읍당국에 사한바에의하면 실로 일이오호에 팔백사십구명이란 놀라운통계가 나타나게되엿다 이들은 순전히 겸이포일철제청소(兼二浦日鐵製鐵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제반공장을수축한다는등의 소식을듯고 멀리북으로는 함경남북국경방면으로부터 남으로는 재해지 삼남방면등에서 살길이업서 물거품가티남부녀대로 떠드러온 이민들로서하절(夏節)에는 그럭저럭 이공사장저공사장에서 저렴한 임금이나마 바더기며 로동하든 관계로 근근연명하여왓스나 이치운 동절을당하면서부터는 각공사가 중지되며 더욱이 상공회사(商工會社) 삼화조(三和組)등의 하역(荷役)사업도 결빙관계로 중지케되여현재에 잇서서는 살아나갈길이업시 되엿스며 더욱이 구세말을 당하고 방금혹한과 기한으로 토막과 불량가옥속에서 이불도업시 떨고잇는정경은 보는사람으로하야금 눈물을 자아내게한다는바 읍력세말을 압두고 그들은 당국의 따뜻한 구급책만바란다고한다

新年宴會場에서 民警間大亂鬪劇
畢竟에는發劍의騷動

【鎔城】 신년벽두에 귀성군의금광 중추지탑동(塔洞)에서 회사경찰수뇌자간에 가장추한 대란투극이 연출되엿다 얼마전에 귀성군 천마면탑동(龜城郡天摩面塔洞)고하금광회사(古河金鑛會社) 소장소천유승(小川柔勝)(假名)과 경찰관탑동주재소(警察官塔洞駐在所)수석공광소인(凶光小人)량명은 다수유지가 모인 신년연회장에서 사소의론쟁으로 대란투극이 시각되여 필경에는 발검까지 하는등의 무법행위까지감행하여 연회장은 수라장화하엿스며 방관자로하여금 전전긍긍케하엿슴은 물론 시민에게도 일대불안을주어 지방의 지도자요 더욱경찰관수뇌자의 무법행동이라하여비난은 자못놉다고한다

零下十餘度酷寒에 連日賦役을强要
住民의事情은조곰도不顧라고
面當局處事에非難

【草溪】 경남합천군 초계주재소(草溪駐在所)에서는 신춘에합천(陜川)초계(草溪)간에 경비전화(警備電話)를 가설한다고호세십오등 이상자에게는 힘에과한 긔부금을요구하야 일반의비난이자자하든니 지난십사일부터 경비전화가설공사를 착수함을 따라 당지면소(面所)에서는 련일수은주가 령하십도를좌우하는 혹한(酷寒)임에도불고하고 강동리별로 큰동리에서는 이백십오인저근동리는 오십인식 매일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 면민들을 강제로출역케하야 전주운반과 전주세울곳을 파라함으로집심조차 굶고갈돈자의 셩화가튼 독촉에 견듸다못하야언땅을온종일 파다가 석양이라야 집으로 도라간다고하며 면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당국에서 면민의사정은 추호만치도 몰나준다하며 일반의 원성과 비난이 날로 노파간다고한다

名唱과新劇의밤
第一夜超滿員의盛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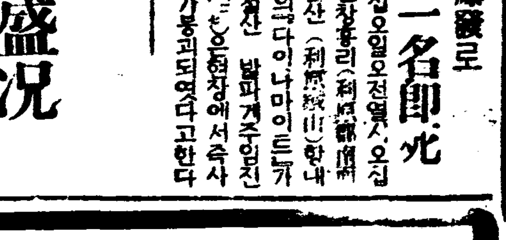
【永登浦】 본보영등포지국주최의 『명창과 신극의밤』의 제일일인 십구일은 사계의 명성이 높흔 리동백(李東伯)씨를 중심으로 남녀명창 십여명으로된 영등포초유의 명창다웁이어슴은 이니라 엇는바 리익금 전부는 빼끌에 사모치는 영하이십여도의 지독한 치위에 긔아선상에서 생활여사의 지긋지긋한 생애를 보내고 잇는 천여궁민동포에게 따뜻한미음 한목움이라도 남우워보자는것이만치 인긔는 자못 비등하야 살점을 에워내는듯한 혹독한 엄한도 가리지안코 정각전부터 모여드는 남녀관객은 장내가 터질듯이 웃층아래층이 모다 초만원의 대성황을 일우워 예상이상의 조흔성과를 어덧스며 순서가 진행되자 악사제씨의 노련한 무용、명창、그 … 도취도엿으로 관중은 온전히 … 섯고 특히 관개중에는 멀니 시내와 김포(金浦)기타방면에서까지 만히 차저와서 눈물겨운 동정금을 앗김업시 쏘다 노앗다는데 그중에는 알지못할 유지신사와가정부인들의 참다운동정도 잇섯스며 가ㅣ페녀급의몸으로 푼푼히모흔 눈물과피석긴돈도 만허서 비장한 극적장면을 일우워스며 당일접수된 동정금은 아래와갓다 그리고 금이십일은긔보와가티 조선극예술계의 최고회회라고 전조선적평판이 잇는 동양극장(東洋劇場)전속극단 청춘좌(靑春座)일행남녀 신진배우 이십오명을 초빙하야 신극과류행가의밤을 개최키로되여 첫날이상의 대성황을예상한다고한다

▲金二十圓長谷川修一氏 ▲金十圓式 柳新成商店 權寧浩氏 安興鎭氏 京城東明館 東亞日報永登浦支局 永登浦醫院 ▲金五圓式 陽川權寧元氏 申春奉氏 金光奎氏 中央日報永登浦支局 京城金享坤氏 李□城氏婦人 ▲金三圓式 李□山氏 李景晟氏 橫尾武毅氏 ▲金四圓 白字永氏 李平植材木店 金永仁氏 ▲金二圓式 李昌洙氏 朝鮮新聞研究會員太石氏 ▲金一封 大陸永登浦支局

(사진은성황이룬명창대회광경)

神經痛 류마치스 患者여러분께

東洋에唯一인 注射와同効한 內服藥



苦하시는 여러분께 참으로 同情하나이다 世上에는 여기에對한藥을 만히宣傳하지만은 滿足을 줄만한根治藥은 하나도업다고해도 過言이안일줄밋습니다 이와갓튼大部分의 宣傳藥은 全部가 西洋藥本位로되여져 서衣食住가다른東洋사람의體質에는 여러가지로適當치못할줄밋사오며 東洋에서단지 하나인 神經痛良藥「野久之」로말하면 古代로부터傳해오는 獨特한處方이므로 近世에發達된西洋藥이따르지못할 理想的奇妙한作用을하야着着難病救治를하고잇습니다 이것은日本에서唯一한秘傳良藥으로서古代로부터有名하엿지만 元來에特殊한原料와獨特한

製法에依하야製造하는關係上 大量의製造를 할수업서서他藥店에販賣치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하옵든中全快者諸氏로부터宣傳되여 日加月增의比로續續注文됨으로 今般當市에出張所를設立하고 널리 시드려가는病者를救하기爲하야 直接注文者에게限하야만 發藥하기로햇사오니 이런機會를利用하야續續注文하야服用하시고全快하시옵을바라나이다

當所에는讀者여러분의便利를 도모하느라고 朝鮮文으로 說明書가잇사오니 朝鮮日報에서보섯다하고、편지나엽서로病勢를통지하시면、治療方法과野久之의由來와全快者의 感謝狀과其他여러가지說明書를보내드리고全快의길을발부시도록專心專力하고자하오며 先金注文하시는분에게는送料를부담해드립니다、藥價는內用藥・一週分二圓、二週分三圓五十錢、三週分五圓、外用藥一圓、二圓、參圓等

東京市京橋區入舟町 藥野莊東京出張所 振替東京五四五〇番

製造家를求함

갑장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 京鄉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絹糸는供給하여들임으로서 遠地에서라도 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鞆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文店・東京

政府允許 六方鹽法器 絕對療法

◎◎神奇한療法으로서現下白熱的好評絕對로다른데는업다。本器는一指觸處에찌르르하게되고손바닥에서六大刺戟을改排하는 本器術者의身體에裝置하야서손바닥부터鑛에感應에레기熱其他六大刺戟을强弱自在로放射함은더구나外面에서보면조금도알수업는이상한器械、그러고從來各種療法에응用하면超絕的效果가잇다。

나되수잇은收益多大無試驗開院時하는수잇슴

(說明書無代進呈) 名古屋市東區森下四五、電話東六三二七 聖開

大阪着名問屋案內

百圓資本 으로文房具店을開業합니다

四錢切手添付하야申込하는諸位에게案內書及型錄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七三番

勞働 セーラー 乘馬ズボン 洋服各種 製造卸

(商店에限하야見本相場表送呈)

其他コール天服一般

大阪市東區平野町一丁目二〇番地

若原重商店

最新流行

(バックル)

金屬付バックル ラクト卸 クローム金屬卸 小供帽用金屬

大阪市東區黑門町二〇九番地

稻垣加工所

製造販賣

右バックル見本入用의時에는前金一圓五十錢送附하시면取合一打送附하겟사오니多少를不拘하고下命을願합니다

庭矢票

冬物品揃

毛綿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心才橋角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포리도-루레코-드

◎大亂賣

一圓五十錢盤을 단一金一圓也!!

에限하야

鮮于一扇 東海林太郎 吹込한레코-드外에

各種具備

二月新譜도具備

京城鍾路二丁目 鮮一樂器店 電光(3)五七七

京城南大門通 明時堂蓄音器部 電本(2)二四四四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 … 文社

●히스테리-에 はれやか●

當一月二十日부터大公開 모노그람映畵會社作全發聲日本版

魔海의王者

알만드、세파氏監督 사리오나ㅣ르主演

海底에潛水하야海綿을採取하는것으로業을삼는漁船隊의苦心慘憺한生活에秘面!이곳에서일어나는愛慾에爭鬪戰!보고보고또보아도실치안흔名篇

東洋映畵社第一回作品朝鮮日報連載小說

僧房悲曲

李慶善 金蓮實 尹逢春以外名星總出演

一月十九日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一、낮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二、噴火山의伊太利와에디오피아 一卷

三、콜럼비아社特作全發聲映畵!

喜劇 엉터리拳鬪家 全二卷 主演—도로시구라칼

콜럼비아社全發聲映畵!

喜劇 少年幌馬車

콜럼비아社全發聲映畵! 主演—밋기ㅣ루니

喜劇 虫の居所 主演—레온・에롤

◇마기노特作現代劇

悲劇 歡樂의그림자 全七卷 監督—稻葉蛉兒氏 主演—砂田駒子孃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探偵劇 나는善人이다 全九卷 監督—쪼-지・ㅁ・氏 主演—에드와드・G・로빈손氏一人二役

永登浦桃花洞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아意外에女流音樂家恩淑으로말미암아富者의아들李永秀는明淑을사랑하엿스나女流音樂家恩淑으로말미암아明淑은自殺을도모하려든곳으로부터이야기에실마리는풀이려한다明淑에可憐한前道가엇지나될가?

大都映畵社超特作時代劇

風流千石やくざ

阿部九州男宮乙女主演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十七日ヨリ二十三日迄京城鐵道カトリック青年會主催特別大興行

晝夜二回晝十二時半夜六時半始映

パラマウト超大作全發聲日本版

十字軍

セシル・B・デミル 監督 ロレツタ・ヤング ヘンリー・ウイルコクスン 主演

出場人員五萬人馬匹八千頭使用

是れこそ世界歷史上 最初の大戰爭映畫、英國獅子王リチヤードの率ひる果敢な三萬餘騎、これを要擊するは强豪サラセン人七萬騎渺茫千里の荒野に興亡一擧に期す壯烈な大激戰!人馬入り亂れて天地を搖すアーカーの戰ひ!!今ぞ見る血どられし歷史の一頁……

一月十九日낮부터三日間特別興行 舊年末特別奉仕週間

每日三回興行 晝間一回 十二時부터六時까지 夜間七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新興키네마社超特作品을사온트版

押本七乃輔監督

時代劇 戀慕草鞋

小金井勝、大久保淸子主演

와喜으로그린故鄕!사랑하는女子를두고떠낫스나五年이란긴歲月을참지못하고歸鄕하니사랑하는女子는怨讐와同居!疾始을못참고奔放한남은게등하여다料亭에잇는女子가純情으로사랑하엿스나한번女子에게송은지라拒絶!

英國고-몬프리데잇介特作全發聲

모리스엘퍼監督

一九四〇年

바실키르드氏베이다힐孃主演

닥처올歐米戰爭을豫想코그린映畵!사랑이야主義나一九四〇年에時代相!

유니버살特作品

죤S로버-트氏監督

夜襲

죠셉스킬드크라르트氏主演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安くて面白い

いたづら小僧

伊藤薰、英百合子、高尾光子

藤原釜足、夏目初子 共演

◎彩色月への祈ネームンキートルオ作特P・C・L

◎ポパイの珍料理店

◎ベテイの日本訪問

パラマウント特作發聲漫畫

山本嘉次郞監督作品、佐佐木那原作、音樂P・C・L管絃樂

電本五二五四番

若草映画劇場

副業 本業

自宅で儲かる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 된다

僅少한資本으로一家安全하게되는前途有望한일이다遠近不問하고副業又는本業으로婦女子에게도되하게되는年中無休永久계속同業競爭者적고地方에따라獨占的事業이된다製品은全部本店에서永久取引함

案內도可함眞實한분에申込次第依賴함

◎見本及案內書無代進呈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拾參番地

マルハマ紙工業所

電話西六二四〇番

000137

婦人病을追放하는

產前產後의養生에!

嚴冬厥冷의防備에!

婦人良藥

喜谷實母散 (히곡실모산)

百人中九十人까지가 무서운婦人病患者라고합니다。그런데어디가낫브지도안코 매우健康한女性이라도 婦人病의원인이라고생각하게되야도 드물지안습니다。病氣가原因되스며、脈冷으로써도 이것이婦人病을어르키는것도잇으며 오래 이르키는일도잇습니다。

女性의體內는特別히複雜化되야잇슴으로써部分部分의治療로서는完全한療法이되지못합니다

喜谷實母散과가튼十數種의高貴藥의配合에依하야各部門의病弊를綜合的으로治療하는特殊한藥效가잇서서비로소貴女의滿足을엇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때에는반드시服用을

足腰가厥冷될時 입덧으로虛弱할時 月經이不順할時 腰痛이甚할時 子宮病이長久할時 流產早產이염려될時 上氣眩暈될時 히스테리症날時 感冒와頭痛날時

가짜가多數流行!『喜谷』의 商標以外의것은當店과全然關係업스니注意하시라

定價 一日分二十錢 五日分一圓 七日分一圓四十錢 十日分二圓 二十日分四圓(?)

本舖 東京・京橋 喜谷市郞右衛門商店

現行商法改正案 (8)

그 全條文內容

第四十條 支配人의 選任及그 代理權의 消滅은 이를 本店又는 支店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을 要함 前條第一項에 定한 事項及그 變更도 亦同함

第四十一條 支配人은 營業主의 許諾이 아니면 營業을 하고 自己又는 第三者를 爲하야 營業主의 營業의 部類에 屬하는 取引을 爲하며 又는 會社의 無限責任社員, 取締役或은 他商人의 使用人이 되지 못함

支配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야 自己를 爲하야 取引을 한때에는 營業主는 이를 自己를 爲하야 한것이라고 看做함을 得함 前項에 定한 權限을 有함

前項의 權利는 營業主가 그 取引을 안때부터 二週間 이를 行使치 안할때는 消滅함 取引의 時부터 一年을 經過한때에도 亦同함

第四十二條 本店又는 支店의 營業主任者인 것을 示할 名稱을 附한 使用人은 이를 그 本店又는 支店의 支配人과 同一한 權限을 有한것으로 看做함 但 相對方이 惡意인 境遇에는 이를 適用치 안음

第四十三條 番頭, 手代其他營業에 關한 或種類又는 特定의 事項의 委任을 受한 使用人은 其事項에 關하야 一切의 裁判外의 行爲를 할 權限을 有함

第三十八條第三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함

第四十四條 物品의 販賣를 目的으로하는 店舖의 使用人은 그 店舖에 잇는 物品의 販賣에 關한 權限을 有한것으로 看做함

第四十五條 本章의 規定은 營業主와 商業使用人과의 間의 雇傭關係에 對하야 民法을 適用함을 不妨함

◆第七章 代理商

第四十六條 代理商이라는것은 使用人이 아니고 一定한 商人을 爲하야 平常그 營業의 部類에 屬하는 取引의 代理又는 媒介를 하는 者를 謂함

第四十七條 代理商이 取引의 代理又는 媒介를 한때에는 遲滯업시 本人에對하야 그 通知를 發함을 要함

第四十八條 代理商은 本人의 許諾이 아니면 自己又는 第三者를 爲하야 本人의 營業의 部類에 屬하는 取引을 하며 又는 同種의 營業을 目的으로하는 會社의 無限責任社員又는 取締役이 되지 못함 第四十一條第二項及第三項의 規定은 代理商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境遇에 이를 準用함

第四十九條 物品의 販賣又는 그 媒介의 委託을 受한 代理商은 賣買의 目的物의 瑕疵又는 數量의 不足其他賣買의 履行에 關한 通知를 受할 權限을 有함

第五十條 當事者가 契約의 期間을 定치안한 때에는 各當事者는 二個月前에 豫告를 하야 그 契約의 解除를 함을 得함

當事者가 期間을 定하고 否하고를 不問하고 不得已한 事由가 잇슬때에는 各當事者는 언제든지 그 契約의 解除를 함을 得함

第五十一條 代理商은 取引의 代理又는 媒介를 함에 依하야 生한 債權이 辨濟期에 잇는 때까지 本人을 爲하야 占有하는 物又는 有價證券을 留置함을 得함 但 別段의 意思表示가 잇슬때에는 此限에 不在함

第二編 會社

第一章 總則

第五十二條 本法에 잇서서 會社라는것은 商行爲를 함을 業으로하는 目的으로써 設立한 社團을 謂함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社團으로 本編의 規定에 依하야 設立한것은 商行爲를 함을 業으로하지 안하나 이를 會社로 看做함

第五十三條 會社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及株式合資會社의 四種으로함

第五十四條 會社는 이를 法人으로함

會社의 住所는 그 本店의 所在地에 잇는것으로함

第五十五條 會社는 他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됨을 不得함

第五十六條 會社는 合併을 할 수 잇음 合併을 하는 會社의 一方又는 雙方이 株式會社인 時에는 合併後存續하는 會社又는 合併에因하야 設立하는 會社는 株式會社又는 株式合資會社임을 要함

合併에 依하야 會社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定款의 作成其他設立에 關한 行爲는 各會社에서 選任한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이를 함을 要함

第九十八條第一項, 第二百四十三條及第三百四十七條의 規定은 前項의 選任에 이를 準用함

第五十七條 會社는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에 依하야 成立함 (續)

米價公定制度 無力暴露難免

出廻最盛期의 米價高出現으로 公定價突破念慮相當

十年産米實收高는 廿日로부터 三日間 農林省에서 發表키로된바 第一回收穫豫想高보다 減收는 確實하다고 보게되야 五千七百萬石臺說까지 傳하고 數日後에는 그 凶作의 實體가 判明케될것이다 最近의 米價는 그 實收減을 豫想하야 新高價를 出現함으로 減收로 確定되면 米價昂騰에 拍車를 加케될모양이다 出廻最盛期를 經過하면 四五年前과 가튼 高米價時代에 드러가게 되지안흘가 念慮되다 卽 昨年의 米價는 淸算 取引先物이 이미 卅二圓臺를 唱하야 最高價格 三十三圓二十錢에 肉迫함이 겨우 一圓數十錢밧게 不過하다 이런現象은 公定價格制度 確立以來 처음될 最高價格에 對한 米價接近은 적어도 出廻期後에 생기는것이 常識으로되엇스나 今年은 그 前例를 逸脫하고 米價는 出廻最盛期에 以上과 前述가튼 昂騰을 나타내엇다 이것은 政府의 所有米가 적은때문으로 米穀統制法의 市場操作能力이 微弱함을 보힌것이며 이 狀態가 繼續하면 出廻期後의 米價가 或은 最高價格을 突破케되지안흘가 하는 豫想까지 잇서 統制法의 米價公定制度도 完全히 無力을 暴露케되지안흘가하는 危惧가 잇다고한다

(日本內地米 三三、九九八袋(臺) 二二、四八〇袋)

追加外安 輸入容認

朝鮮分 一萬噸을

朝鮮內 硫安의 不足에 鑑하야 農林局 尾崎技師는 過般來 渡東하야 外安의 輸入에 關하야 日本內地 商工、農林兩省과 溝通折衝中이든바 大體 當初의 朝鮮內配給은 五千噸豫定이든것이 다시 一萬噸의 追加가 大體容認되엇다 尾崎技師는 二十一日頃 歸任할 豫定이나 右細目 協議上 多少 느즈리라고보인다

貨物輸送計畫

鐵道局線의 新春輸送成績은 客貨가모두 例年보다 增加하야 新春의 活況을 呈하는바 今月下旬의 荷動은 相當하다는 豫想일에 一日平均 二萬五千噸의 使用車千二百五十輛의 輸送計畫을 樹立하엿다

『魚油肥統制改訂』

來月十日協議會開催

問題의 魚油肥統制의 期限滿了에 伴한 改訂協議會는 일즉이 總督府水産課에서 準備工作을 進行하고잇든바 來二月十日부터 京城長谷川町의 水産會館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는데 [illegible]는

一、現在의 買受業者인 三菱商事 合同油脂兩代表者 及 魚油入札關係各社代表者

二、朝鮮內生産者 各道水産組合 漁組聯合會部

三、總督府及各道關係官等 六十餘名의 出席을 볼 豫定이다

이와가티 同協議會에서 問題의 改訂問題가 正式으로 決定을 보기로 되엇는바 大體 改訂形勢는 現狀維持說이 大勢로되어잇스나 一部生産者側의 反對意見은 相當히 强硬하야 何時 如何한 形式으로 表面化할는지 豫測할수업서 注目되고잇다

東拓鑛業課廢止

東拓에서는 今月中에 東拓鑛業에 鑛山事業을 引繼함으로 이에 伴하야 職制의 改正을 斷行하야 鑛業課를 廢止할터인데 柴田鑛業課長은 東拓鑛業의 囑託 또는 技術顧問으로되고 課員은 金融課 또는 東拓鑛業에 各히 轉[illegible]

産組整理

補助豫算十萬圓 救濟組合六處

朝鮮의 産業組合 整理는 過般의 預金部 運用委員會에서 新債整理에 伴한 低利資金의 融通이 決定되어 이와 相俟하야 整理를 徹底케하기로 되엇다 國庫補助는 總督府 十一年度豫算에 十萬圓을 計上하얏다 그리고 産業組合 七十四組合中 金組關係의것 四十九, 殘餘 二十五組合으로는 殖銀, 東拓關係에서 救濟될 組合은 不二農村 平康의 二特殊組合을 除한 六組合이다

全朝鮮內會社는 總數四千五百六

公稱資本九億四千萬圓 拂込資本五億六千萬圓

【京城商議調査】昭和十年十二月末現在 朝鮮內本店會社數는 四千五百六社 公稱資本金 九億四千五百六十四萬二千圓 拂込資本金 五億六千三百六十四萬七千圓으로 그內容은 다음과갓다(單位千圓)

		公稱	拂込
株式	一、一四六社	[illegible]	[illegible]
株式合資	四	一〇五	[illegible]
合資	二、五三一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四、五〇六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中의 異動狀況은 新設六十二社 同公稱六百七十九萬一千圓 拂込四百[illegible]千圓 增資十五社 公稱三百[illegible]萬圓 拂込百十四萬圓 減資三社 同公稱八萬四千圓 拂込五萬六千圓 解散二十五社 同公稱二百三十一萬四千圓 同拂込九十七萬二千圓으로 그主要會社의異動狀態는 新設[illegible]實業(京城) 栽成會社(京城) 工[illegible] 製粉(京城) 朝[illegible] ◇解散 太陽製粉等이

中旬對外貿易

入超三千八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一月中旬對外貿易의 調査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六九、九三〇
輸入	一〇四、五一三
合計	一七〇、四四三
入超	三八、五八三
一月後累計入超	四四、七六九

在庫米는 前週에 比하야 全存米는 二三、二八四叭의 增加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七九、五三〇叭(民)二九九、四〇六叭五斗入八八、五五九叭 ▲白米四斗入四三〇叭五斗入七二叭 ▲正租叭入(政)八六、九三一叭(民)一九五、[illegible] 俵入(政)一八、五九一俵(民)二、一四二俵 ▲大豆[illegible]七、五四一叭 ▲小豆七五〇叭 ▲大麥(白)一、一七二叭(皮)一、九〇五叭三七俵 ▲小麥二六、二三八叭 ▲粉白米二、三[illegible]六二叭五斗入二七三叭 ▲粟五〇叭三、〇一九俵 ▲荏子一、七〇〇叭 ▲胡麻一〇五袋 ▲黍六八五叭二九六俵 ▲裸麥一、二五叭 ▲綠豆一六〇叭 ▲糯米一[illegible](蜀黍)四八七俵 ▲外國米[illegible]

米國新農業政策

樹立의計畫이進行

◇…農務長官演說內容

米國農務長官 위레스氏는 【全國農業家庭時間】에 라듸오放送演說을 한바 農事調整法違憲後의 米國農業政策에 關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農事調整法違憲判決이 農産物價格에 미치는影響은 二대지 큰것이아니다 그러나 六個月乃至 九個月後의 影響에 對하야는確實한推測이 어렵다 이미 一九三四年에도 말한바와가티 米國의 關稅下에 依하야 海外諸國의購買力이 크게增加하거나 또는 米國이 海外貸付를 再開하던가 안하던가하는限에 잇서 그러고 一方惡天候로 因하야 生産減이되지안는限 農産物加工稅와 減段統制計劃의 結果는 數年이되지못하야 一九三二年의 悲慘한狀態를 다시招來하게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때문에 農産物加工稅制度를 變更하야 그에代할方法을 案出하는것은 重大한일이다, 이번農業法違憲判決에 際하야 輿論의意見은 制度代하이엇는데 政府當局으로서는 健全論定한 農業計畫樹立에 可能한方法을 硏究中이다 其間農事調整法에 基한 減産補償料의支拂과 加工稅徵收를中止한다, 卽農事調停局의 全機構는運輸를 中止한터이다.

一方農務省當局者는 新農業計畫樹立의 方途가局限되어잇는데 一般的으로 考究되고잇는方策은 如左하다

一、消費稅를 財源으로하야 一時的國內配定의 制度를 採用하는方法

二、國庫로부터 資金을 捻出하야 各州에 小農事調整局을 設置할方法

三、自發的生産統制計畫을 行할 農村共同組合을 設置할方法

通貨安定問題

⑧ 試驗期가 尙必要

經濟界에잇서 不可缺할 通貨價値의 安定을 維持하여한다고함은 管理通貨를 繼續함으로나 或은 金本位로 도라감으로나 모두 當局者로서는 어려운일이다

×

現在 通貨管理의 問題解決이 相當히 進行한狀態에 잇다고 생각함은 아즉일다 管理通貨가 잘되어갈 與否의 試驗은 不況時代가 아니라 景氣가 恢復한때에잇다 元來 信用機構라고함은 不均衡에 向하는傾向을 內包한것가티 생각된다 信用機構는 不健全한 統制가必要하고 特히 直線方向에 經濟組織이 비갈境遇에는 이것을 곳바로잡는것은 그대지 容易하지 못된다 이때의 危險信號는 物價의 高騰, 其他의 爲替에 不當한[illegible] 加할材料 或은 利潤의 急激한 增大新資本投資가 한轉換方面으로 過度히 흘느고 잇슴은 通貨稅後等에 나타난다 金本位制下에 잇서는 時時刻刻 經濟情勢가 健全한 與否에 對하야 打診할바이다

×

英國以外의 나라에서는 議會와 獨裁主權者의 指導下에 大藏省과 中央銀行이 理智의 힘만으로 金과가튼 다른標準의힘을 빌지안코 通貨를 오랫동안 管理하여갈수잇다고미듬 經驗이 充分치못하다 金은政治家에는 求치못하는 한業務를 가지고잇다 딸하서通常의狀態로는 이것을 떠나기를진기지안는다 오늘 混沌한 世界의 變轉이 複雜한中에잇서 사람의 理智力이 그에對抗할만한 程度에 達치못하엿다 그럼으로 價格機構와 金本位制와가튼 自動作用으로支持되여가며 모든手段을다하드래도通貨의管理에는 實現이必要하다 卽理性과 判斷뿐만 아니라 判斷이 매우 어려움으로 騷亂과 曖昧한點이 만흠으로 實行할意思의 한層必要로한다 勿論 金本位制下에잇서도 理智判斷意思는 必要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境遇에는 그것을 引導하는 道標가잇다 어떠튼지 가장 重要한通貨의 世界的安定을 回復하기爲하야 英國이自己의役割을 어떠케할가하는 것은 將來 英政府를束縛지안는判斷에 달려잇다 (續)

米增加

[illegible]日現在 仁川[illegible]

經濟界消息

○京城商議總會開催=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廿二日午後二時부터 議員懇談會, 二十五日午後二時부터 臨時議員總會를 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 附議할터이라고

一、昭和十一年度經費豫算及賦課徵收方法件

殖銀異動

殖銀에서는 廿日付로 支店長級이 다음과가티 異動이잇섯다

▲命釜山支店長 松井彦治郞(檢査課長) ▲命檢査課長 三宅喜治(大田支店長) ▲命全州支店長 加藤三郞(沙里院支店長) ▲命沙里院支店長 石川清深(公州支店長) ▲命公州支店長 島谷眞方(城津支店長) ▲命城津支店長 岸田淸淑(尙州支店長) ▲命尙州支店長 倉品鍊夫(原州支店長) ▲命原州支店長 內牧務(釜山支店長代理) ▲命釜山支店長代理 伊藤正憲(忠州支店長代理) ▲命忠州支店長代理 千葉政胤(淸津支店) ▲命依願解職 白石甚吉(釜山支店長)

對外爲替市況

【東京廿日電話同盟】

▲東京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十五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十五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商況【二十日】

株式 不熄의 戾賣

前場續落 今朝에도 商品低를 伴하야 休日前의 軟勢가 繼續되야 朝新十錢低인 廿九圓九十錢 大新三十錢低인 九十圓九十錢 東新一圓三十錢低인 百五十七圓六十錢 鐘新九十錢低인 百四十五圓八十錢이엇스나 日産만은 三十錢高인 七十三圓二十錢의 各寄付가잇슨뒤 追擊賣가 잇서 多少下落의 傾向이 不絶하엿다 그러나 步調는 依然緩軟으로 鐘新百四十五圓五十錢 日産은 不變의 七十三圓二十錢, 東新百五十六圓六十錢, 大新九十圓五十錢의 低價大引을 示하엿다

後場下落 今場에는 東新이 十錢高인 百五十六圓八十錢, 大新은 十錢低인 九十圓四十錢, 朝新不變의 二十九圓九十錢의 各[illegible]

期米 突込賣는 警戒

前場續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九十錢에 據引한 當市場은 一體今朝에 入하야 阪地初寄三十一圓九十一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七十錢인 十丁反落을 據하고 二十九圓七十六錢인 十一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一節七十三錢으로 五錢까지 小戾하엿다가 七十三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七十四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七十七錢에 止場하엿다

後場頑强 今場에는 四錢低인 二十九圓七十三錢에 寄한뒤 六十九錢으로 軟化하엿다가 反騰하야 七十九錢으로 頑强히 止하엿다

農家態度注目 依然賣惜已而

日本內地米實收高의 減收程度는 一般選材로하야 買煽하든 各地市場은 前場부터 阪地山種一派의 賣壓으로 反하야 軟態에 傾하야 罪業買方의 狼狽的賣物을 招하게되엿다 그러나 農家의 態度는 換金的鋪賣의 目睫에 當하엿슴에도 依然賣惜할뿐아니라 實收高의 減收程度如何를 不拘[illegible]

今日財界 (二十日)

[illegible]

議會解散人氣

明日再開압두고

二十一日에 議會가 再開됨으로 一般人氣는 不安과 焦燥로 政局의 推移를 重視한다 그동안 果然 政友會가 政府에 對한 不信任案을 再開劈頭에 提出하느냐 아니하느냐 昨今의 情勢로 보면 政府는 政友會의 强硬態度를 살피고 이보다 압질러서 그 不信任案의 提出前에 議會의 解散을 斷行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消息으로는 議會의 解散은 거의不可避의 事實로 보힌다 딸허서 市場人氣도 解散豫想에 傾하야 取組의 大下長을 買方의 點으로잡어가지고 賣一堅이 繼續되고잇다 그런대 오늘에잇서 議會가 解散된다고하면 選擧後의 政局을 어떠케보아야 할가하는 前途에 노흔重點이다 어떠든 繼續한政局의 選擧를 보기까지도 이것을 材料로는 買人氣는 容易히 떨치어려울듯하다

底入은 尙早?

環境은 昏迷狀態

議會解散은 必至의 情勢일뿐만 아니라 그밧게 軍縮會議脫退後 國際政局의 尖銳化 또 重要商品의 不振等 內外事情이 昏迷狀態에 잇슴으로 容易히 低價買進이 어렵게되여 잇고 目前에 잇서는 環境의 不良에 딸허서 人氣의 軟化와 同時에 賣込을 誘致할수박게 업는商狀을 呈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買方의 投出로 떨어진 市勢이엇슴으로 今後는 惡材料로 賣込이 드러가게 되지안흘가한다 그러나 軟派는 低價에 突込賣를 極力回避하는傾向이 잇슴으로 一氣의 崩壞가 업시슴면 떨어저가는步調가 나타나게되다 그럼으로或은 多少反動이잇슬는지모르나 底는 計拔된市勢로 보기어렵고 딸허서 底入은尙早인듯하다

實收發表期待

兩方이모두 躊躇

一時는 日本內地米實收가 二百萬石이나 減收될것이라하야 買氣가 漲溢하엿스나 昨今에 入하야는 第二回豫想인 五千七百五十萬石에 比하야 그다지 減收가 업슬것이라는 說이 또한 濃厚하야 當局의 市場을 中心으로 山種、田中의 一派의 觀測도 發表되기前에는 機先을 取하야 人氣를 捉하기 困難함으로 賣方으로 보면 買方의 反面의 數字를보고 後押目을 하기만 不如하다하야 實收의 減收程度의 如何가 多少波紋을 일으킬것은 事實이나 收입것만은 明瞭함으로 前途需給關係에 對하야는 依然悲觀을 許치못할것이며 從하야 樂觀賣의 方針은 樹하기 難함으로 大勢는 結局上放하고야 말리라고云云

朝鮮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軟弱 期米의 漸弱을보고 賣買가 적고 市勢는 十五錢低이엇는데 丸仁三等二十九圓十五錢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仁川氣崩 淸算의反落을보고 人氣漸衰을 呈하고잇는데 休日前보다 十錢低이며 奧地正租는 依然頑强을維持하엿다 丸仁三等廿九圓十五錢 四等廿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釜山軟調 市場出廻六千五百叭、定期의低落을보고 人氣가 冷靜化하고 日本內地의 買注文이 低價이므로 買氣가 不振하고 氣配一、二十錢低의 軟調를 呈하엿는데 角ヲ三等廿八圓九十五錢 四等廿八圓二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群山續落 越着三十輛、定期의 軟調와 産地出廻로 市勢가 十錢에서 十錢續落의 無勢를 呈하엿는데 菱ク三等二十九圓二十五錢 四等二十九圓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木浦不變 日本內地의 相場은 反落되고 賣買가 적게되고 所持側의 頑强을 [illegible] 丸示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大邱低落 當用買不振과 期米의 續落을보고 呼價가 一氣로 二十錢低落을 나타냇는데 角ヲ三等廿八圓八十錢 四等廿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五錢

朝鮮取引所取引員 아세아證券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ノ一 日生ビル一二號室 電話本局(代表)二三四四 四〇九七 四〇八六 進呈 아세아業報

市場六感

株 ▲廿一日議會의再開를 압두고 一般人氣는 이곳으로集中되엇다 ▲政府의 不信任案을 提出하라는 政友會의 態度에 압질려 政府는 政友會의 不信任案提出前에 議會의 解散을斷行하라는勢가 날로濃厚化 ▲이것으로보아서 議會解散은거의確定的 ▲딸아서 이解散豫想으로 賣人氣가 得勢케되야 市勢는 續落 ▲그리고 東京에서 解合되엇다는 所聞이잇스나 東京東新의 取組는 依然大下長임으로 아직도 玉整理가 完了에 일흔것으로 생각키어려웁게도보힌다 ▲어떠튼지 議會解散을 揚材料로 玉整理가 當然히 進行되고잇는것은事實 ▲이點에잇서玉整理의完了를압호로엿보아가지고 사는것이 어떠할가 ▲그러나 環境이不良하고 더구나 議會가解散되면 政局이 不鮮明케될것임으로 積極買의方針은 當分間保留하여둘것이라는말도잇다

米 ▲一休今朝의 市勢는 阪地約二十丁低落을 비롯하야 當地는 十五丁의反落 ▲果然山種一派의 觀測과 如히 今日부터發表하는 實收高가 第二回豫想과 大差가 업슬는지 ▲山種一派는 實收의 比較的樂觀을目標하고 賣叩不息하는光景이오 買方은 一息狀態 ▲新春發表後 六、七十丁의 反撥을 告한後이만큼 相場律에 依하야 反落은 當然하다고 할수잇스나 反落은 昂騰할前提일것을 記憶해둘일 ▲果然 實收發表가 比較的樂觀이 된다할지라도 第二回豫想으로 보아서 凶作은 變치못할일 ▲淸算市場은 實收發表如何에 依하야 一波瀾이 잇슬것으로豫期하고 바로混戰을 開하나 그러나 農家의 賣惜하는 態度는 昨日이나 今日이나 依然不變 ▲實로實收發表後에 보기조케 一落을告한다할지라도 結局은 다시 反騰하고야 말 모양이니 찰아리押目買가 得意일듯

市況表 (二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引◆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籾粕冲價◆ [illegible]

◆鰯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시카고期米◆ [illegible]

土 金 福 石 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番地
電話本局(2)四八五六番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貨車渡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麥產業組合聯合會에서 多數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